

특대 소년

(working title)

2011. 06. 16

CONFIDENTIAL

본 시나리오는 무단복제나 발췌를 금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작 (주)영화사 비단길

음란서생 (2006)

추격자 (2008)

작전 (2009)

혈투 (2011)

각본/ 감독 조성희

서울대학교 산업디자인과 졸업 (2004)

'남매의 집' (단편, 한국영화아카데미 졸업작품, 각본/연출/편집, 2009)

미장센 단편영화제 대상, 절대악몽 최우수 작품상, 미술상 수상 -

칸 국제 영화제 시네파운데이션 3등상 수상 -

전주 국제 영화제 단편 최우수 작품상 수상 -

두바이 국제 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 수상 -

서울 독립 영화제 우수상, 미술상 수상 -

그 외 전 세계 다수 영화제 초청작 -

1. 순이의 집 [침실/욕실/거실] _ 새벽

새벽, 머리가 하얀 할머니 순이(65)가 침대에 모로 누워 있다.

침대 옆 무언가를 응시한다.

탁상용 전자시계, 05 : 59

잠시 후.

시간이 06 : 00 로 바뀌고 자명종이 울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스위치를 눌러 끈다.

침대를 나가는 순이.

- 욕실, 순이가 이를 닦는다.
- 세수를 한다.
- 머리를 감는다.
- 셔랍을 연다, 곱게 정리된 블라우스들.
하나를 꺼내려다 맘이 바뀌었는지 다른 색을 꺼낸다.
- 단추를 잠근다.
- 옷장에서 가디건을 꺼내 입는다.
- 화장대에 앉아 머리를 정성스럽게 말아 올려 머리핀으로 고정시킨다.

정갈하고 단정하게 차려입은 순이.

거울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검버섯을 닦아보려는 듯 속 만져본다.

콧수염을 만져보고

늘어진 볼 살을 슬쩍 올려본다.

순이 (나지막이)이게 웬 괴물어냐...

- 계단을 내려오는 순이.

거실(미국식 거실)로 들어서 소파에 앉는다.

너무나 조용한 거실.

가만히 앉아 허공을 보다가 얼굴을 굽다가 무릎을 툭툭 치다가...

할 일이 없는 듯.

- 베란다 화분을 내려다보는 순이.

- 힘들게 화분을 옮기는 순이.

순이 이거는 며칠 째 여기 처박혀 있네. 큰 놈 때문에 햇빛을 못 받아 가지고... 이것 봐.

허해졌어 그냥... 이파리가 넓은 거는 따로 이렇게 놔야지...

혼자 중얼 거리는 순이 뒤로 들리는 젊은 여자의 목소리(서툰 한국말).

며느리 (머리를 뒤로 묶으며)와 두세요. 아따가 제가 할게요.
 순이 ... 그럴래?

2. 순이의 집 [식탁/거실] _ 아침

식탁에 모여 앉은 순이, 아들, 며느리, 손자.
 다들 출근, 등교 준비를 하고 앉은 미국식 아침식사.

순이 전화는 없나?
 며느리 어제 왔어요. 할머니 잘 있냐고... 할머니 보고 싶다고.
 순이 직접 묻지 왜 그걸 건너 물어.
 아들 한국에서 걸면 여기는 밤이니까. 어머니 주무시잖아요.
 순이 ... 그래도 다음엔 나 꼭 바꿔줘. 깨워서...
 아들 은주 다음 주에 집에 와요.
 며느리 애 요즘 이상해. 남자친구 생긴 거 같애. 저녁엔 전화도 잘 안 받고.
 아들 (갑자기 놀라) 진짜? 한국에서? 애가 요새 단속을 안했더니...
 순이 아이고~ 애들이 지금이 어느 때라고 그런 애길 해. 나이가 열아홉이면 남자 한참 만나야지.
 여기 열 서넛 먹은 것들도 길거리에서 입 맞추고 다 하는데.
 아들 난 그런 거 못 봐. 남자애들 하나같이 머릿속에...

순이와 아들의 육신각신이 이어지는 중 전화벨이 울린다.
 며느리가 거실 전화를 받는다.

며느리 Hello? ... 네?... 맞는데요? ...네 잠깐만요. (순이에게) 어머니! 한국에서 전화 왔어요.

순이는 뒹뒹뒹 헬레벌떡 전화기로 다가오며

순이 은주구나...(전화를 받으며) 여보세요? 은주야!

순이에게 고개 젓는 며느리.

순이 (잠시 듣고 있다가)... ... 네 제가 김순이 맞는데요. ... 예...

순이는 말이 없이 듣다가 표정이 굳어진다.
 순이를 바라보는 가족들.

아들 누군데요?

순이 예... 네... 네 알겠습니다.(끊는다)

순이가 힘없이 거실 의자에 앉고 가족들이 주위로 둘러선다.
잠시 멍하니 있던 순이, 대답을 기다리는 가족들을 느끼고.

순이 얘 나 한국에 좀 잠깐 보내다오.
며느리 ... 무슨 일 이신데요?

3. 공항 _ 낮

- 비행기가 착륙한다.
공항 게이트를 나오는 순이.
마중 나온 은주가 순이를 포옹한다.

4. 별장으로 가는 길 _ 낮

운전하는 은주, 조수석에 순이.

은주 (서툰 한국어)말 잘하는 줄 알았는데... 교수님들 말씀은 어려워 한국어 같지 않아.
순이 한번 하고 두 번 하고 계속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그렇게 배우는 거야.

그때 은주의 핸드폰이 울린다.

은주 (핸즈프리)엄마... .. 지금 할머니 모시고 가고 있어. (네비게이션을 확인하며)강원도 화천군 도계면... .. 응 잠깐만.
순이 (전화 받고)응 나다. 오는 데 불편하지 않았고 밥도 잘 먹고 약도 다 챙겨 먹었다.
며느리 그냥 은주보고 하라고 하지 왜 구지 가서서 고생을 하시고...
순이 고생 안한다니까.
며느리 어머니... 그이가 그냥 팔아버리고 얼른 오시래요.
순이 ...몰라. 전화비 많이 나와~ 끊자.

저 멀리 푸른 초원을 향해 달러가는 승용차.

5. 별장 _ 낮

매우 낡고 음산한 별장 앞에 선 순이와 은주.
마당 한편에 두 어개의 별채, 주위로 펼쳐진 한적한 들판.

은주 할머니 예전에 살던 데예요?
순이 잠깐 살았었어. 아주 잠깐.
은주 잠깐?
순이 내가 옛날에... 좀 아팠어. 그래서 여기에 요양 왔었지.
은주 어디가 아팠어?
순이 응 여기... 폐, Lung이 좀 안 좋아 가지구.
은주 여기 집, 지금 보면 무서워. Looks haunted with monster...
순이 괴물 나올 거 같아?
은주 응...
순이 그때도 그랬어. 처음 봤을 때 딱 괴물이라도 나올 거 같더라구. 근데 말이야...

순이는 무서운 얘기라도 해주려는 듯 분위기를 잡더니

순이 아이구야! 진짜 괴물이 나왔네?!
은주(웃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순이 근데 괴물도 같이 있다 보니까 안 무섭더라구.
은주 할머니 몇 살 때?
순이 예전에 너 만날 때... 너처럼 예뻐할 때... 그 때...

별장을 바라보는 순이의 주름진 얼굴.

6. 별장 [마당/헛간] _ 밤

순이가 보던 별장, 어두운 밤 비바람이 몰아치는 별장으로 변한다.
시선 앞을 지나가는 검은 우비의 괴신사.
괴신사가 별채 앞에 선다.
옆에 세워 둔 몽둥이를 집어 들고 안으로 들어간다.
그곳은 양쪽으로 늑대들이 가두어져 있는 헛간.
헛간 중앙을 가로질러 걷는 괴신사. 양쪽 철망 안으로 늑대들이 어슬렁거린다.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가슴을 움켜쥘다.
다시 걷는다.
괴신사의 손에 쥐어진 몽둥이와 양동이.
양동이 안에 검붉은 고기 덩어리들.

헛간 안쪽 끝에 다다르자 두꺼운 철문이 보인다.
 다섯 개의 자물쇠가 채워진 철문,
 괴신사가 열쇠꾸러미를 꺼내 자물쇠를 연다.
 하나 열고
 두 개 열고
 그 순간 철문 안에서 돌리는 괴물의 숨소리, 마치 곰처럼 낮고 굵은 소리로 그르렁 거린다.
 세 개 열고
 갑자기 광! 안에서 무언가 철문에 부딪힌다.
 그리고 계속되는 괴물의 거친 숨소리,
 괴신사가 철문을 몽둥이로 광! 내려친다.

괴신사 시끄러...

고요해지는 철문 안.
 괴신사 네 번째 자물쇠를 열고
 다섯 번째 자물쇠에 열쇠를 꽂으려는 순간,
 가슴을 움켜잡는 괴신사, 신음하며 바닥에 쓰러진다.
 엎어진 양동이, 떨어진 열쇠 꾸러미, 그리고 몽둥이.
 주위에 늑대들, 움직이지 않는 괴신사를 조용히 바라본다.

7. 별장[마당] _ 낮

#5과 같은 자세로 별장을 올려다보는 순이(19, 순이는 손녀 은주와 똑같이 생겼다. 같은 배우)
 핏기 없이 창백한 얼굴. 햇살이 눈 부서 찡그린 탓인지 순이의 표정이 권태롭고 불만스러워 보인다.

명수 비켜.

순이 옆으로 동생 명수(12)가 짐 상자를 들고 바쁘게 지나간다.
 순이는 턱에 걸쳐 있던 마스크를 올려 쓰고 흰 장갑 낀 손으로 가방을 들어 올린다.
 주위로 이삿짐을 옮기는 사람들이 보인다.

엄마 (순이에게)내려놔. 넌 가서 쉬어. 얼른. (옆에 동석할머니를 보며) 아유 할머니~ 이 무거운
 거들...

할머니 괜찮아요! 새로 이웃이 왔는데 당연히 해줘야지. 같이 하면 금방 하는 거야.

짐을 들고 뛰어다니는 명수 또래의 뽀뽀머리 소년 동석(12)과 꾀죄죄한 동석의 여동생(6)동미.

할머니 동석아! 그러다 넘어져 깨져! 조심해. 동미도 뛰지마.
 엄마 (뛰어오는 명수를 보며)명수! 너도 뛰지마. 먼지 날려~

커다란 서랍장을 트럭에서 내리고 있는 아저씨 정씨(51).

정씨 (트럭 옆 누군가에게)어이! 이거... 여기 좀 받쳐봐.

보면 멀끔한 양복차림에 머리에 기름을 잔뜩 발라넘긴 남자 지태(24).

주위의 시골 사람들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모습.

지태는 정씨를 흘끗 보지만 대꾸도 않고 오히려 피해 물러선다.

한 걸음에 달려와 짐을 받치는 엄마.

지태를 보며 '뭐 이런 자식이 다 있나?'하는 정씨의 표정.

엄마 제가 할게요. 이 사람(지태)은 놔두시고...

엄마와 최씨가 서랍장을 들고 지날 때 지태가 주머니에 손 넣은 채로 다가와

지태 어머세요? 괜찮죠? 여기만큼 공기가 괜찮은데도 없어. 우리 아버지 별장도 저 바로 근처고.

엄마 (무거워 끄끙 거리며)고... 너무 고마워. 지태 덕분에... 내가 이 은혜는...

보고 있던 순이, 가방을 어깨에 두르고 같이 서랍장에 합류하며

순이 (지태에게 눈을 흘기고는 엄마에게 은밀히) 그런 얘기 하지마.

8. 별장[거실] _ 저녁

거실에 모인 순이 가족과 마을 사람들, 푸짐하게 차려진 저녁상.

엄마 너무들 고맙습니다~ 안도와 주셨으면 우리 세 식구 지금까지 짐 나를 뵈했네. 순이야, 명수야,
 감사하다고 인사드려.

명수 (허겁지겁 먹으며 건성으로) 고맙습니다.

순이 고맙습니다.

인사하는 순이, 명수를 보던 동석 할머니, 질 수 없다는 표정.

할머니 우리 동석아 동미 '잘 먹겠습니다.'하고 먹었어?!

동석,동미 잘 먹겠습니다!!

입안이 터져라 밥을 넣고 있는 동석과 동미를 보며 '봤지?'하는 할머니의 표정.

엄마 이미 먹고 있는데... 아무튼 너무들 감사해요.
 정씨 근데 바깥어른은 어디...
 엄마 ...돌아가셨어요. 재작년에... 그냥 제가 집에서 원고 교정일 보면서 애들 키우고...
 정씨 응...
 엄마 이 동네 분들 전부 식사 하면서 인사 좀 드려야 될 텐데.

순이가 찌개에 수저를 가져가지만 정씨, 할머니, 동석 모두 찌개에 쪽쪽 수저를 담그며 먹고 있다.
 입안에 음식을 보이며 이야기하는 정씨.
 때 얼룩진 얼굴에 밥풀이 묻은 동석, 동미.
 그들을 보며 수저를 거두는 순이, 입맛이 달아난 듯 물을 마신다.

정씨 이게 답니다. 우리 집에 세 들어 사는 처녀가 하나 있는데... 아유~ 얼굴 보기 힘들고...
 그나저나 말이요. 이 집 지어진 지가 5년이 넘었는데 말이요. 내가 여기 안에는 처음 들어와 보네.
 할머니 그럼! 나도 왔다 갔다는 많이 했어도 처음 보네! (감탄)방이 몇 개야~ 전화도 있고.
 엄마 전에 아무도 안 살...
 정씨 안 살긴~ 살았지. 하여튼 뭐하는 양반인지는 모르겠는데 생전 밖을 안 나와. 제대로 말을 한번 못 섞어 봤어. 그러다가... 저기 국 한 그릇만 더...

순이가 얼른 그릇을 받아 주방으로 간다.
 국통 여는 순이. 뒤로 들리는 목소리들.

할머니 그러다 얼마 전에 심장마비로 죽은 거 아냐. 죽고 나서도 못 봤지.
 정씨 그 양반이...저 옆에 헛간 있잖아요. 거기서 뭘 키웠나면, 송냥이를 키웠어요. 이리들...
 명수 우와!!!
 엄마 ... 왜... 그런 걸... 드실려고?
 할머니 아니~ 무슨 뭘 공부를 했던 모양이야. 책 들고 왔다갔다 땡기는 건 봤지.
 정씨 내가 그 이리 놈들 뛰쳐나와서 우리 염소들 잡아 먹을까봐. 얼마나 노심초사 했는지...

순이의 손등에 국이 튄다.
 인상 찌푸리며 즉시 물을 틀어 손을 씻는 순이.

정씨 애들이 아주 이쁘네~ 근데 학교가 멀텐데... (명수에게) 너는 저 태령초등학교 다닐 거고...
 딸래미는 저기 고등학교면은 어디냐... 정확하고 다닐 모양이네.

순이가 물을 잠그자 물소리가 멈춘다.
 동시에 순간적인 정적.

엄마, 명수가 주방 쪽 순이 눈치를 살핀다.
정씨는 '내가 실수라도 했나?'하는 얼굴.

엄마 (속삭이듯)순이는 학교 안 다녀요.

국을 가져와 정씨 앞에 놓는 순이.

순이 먹고 더 드세요. 엄마 나 아까 마당에 놔 둔거 있어서... 잠깐...

순이가 현관 밖으로 나간다.

엄마 (나가는 순이를 확인하고) 우리가 이런 좋은데 살 형편은 아닌데... 순이가 아파가지고
여기 온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요양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요.

할머니 아니 어디가...

엄마 폐가 안 좋아요. ...그래서 검정고시라고 학교 안다니고 공부하는, 그거 하고 있어요. ...
몸도 그렇고 맨날 혼자 있고 그러니까 저렇게 예민해가지고... (한숨) 우리 딸 웃는 걸
본지가 언젠지 기억도 안나요.

할머니 응... 딱하네. 얼굴도 허여니 백지장 같은 게 기운이 없어 보이더라니...

정씨 아니 근데 아까 그 머리에 기름 바른 사람은 누구요? 순이 오빠가?

엄마 애 아빠랑 동업하던 분아들인데요.

정씨 이 집 식구는 아니지? 어쩐지~ 아니 딱 보기에 못 돼 먹었더라구!

할머니 어른들이 앞에서 일하는데 담배나 꼬나물고 말이야!

정씨 그 놈은 여기 왜 온 거요?

엄마 ... 그 놈이 이 집 사줬어요.

할 말이 없어 무안해진 정씨와 동석 할머니.

9. 마을 길 _ 밤

승용차 운전석에 남자, 조수석에 여자(경숙), 둘 다 만취한 듯 횡설수설.
여자와 이야기 하느라 정신 팔린 남자, 앞을 보자 맞은편에 고급 승용차가 오고 있다.
급하게 핸들을 틀어 옆으로 비킨다.
엄소들이 노니는 울타리 바로 앞에서 간신히 멈추는 승용차.

만취남 뭐야 저거!!!

만취남 궁시렁 거릴 때, 경숙는 멀어지는 고급 승용차를 바라본다.

겸숙 (흔жат말) 차 좋은데?...

10. 별장[마당] _ 밤

천천히 마당을 걸으며 하늘을 바라보는 순이.
 밤하늘의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다.
 순간 근처 어딘가에서 희미한 짐승의 숨소리가 들린다.
 흥칫 둘러보는 순이.
 순이의 시야에 들어온 헛간, 한눈에 보기에도 더러운 장소.
 그 옆, 아직 안으로 들이지 못 한 짐 상자들, 그 위에 통기타.
 순이는 다가가 기타를 집어 든다.
 바로 옆 문 열린 헛간, 그 안으로 등굴처럼 깊은 어둠이 보인다.
 헛간에서 악취가 나는 듯 찡그리며 물러서는 순이.
 그 때 들리는 차 소리, 헤드라이트가 순이를 스치고 지난다.
 보면 검은 고급승용차에서 내리는 지태.

지태 노인네들 아직 안 갔어? 밥들 참~ 오래도 처먹네.
 순이 뭐?
 지태 뭐? 라니? 말 좀 높여~ 어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어이가 없는 순이, 지태가 순이의 손목을 잡으려 하자 순이가 내친다.

지태 어? 이 집 누가 해줬는데~ 왜 이래?!!
 순이 엄마 때문에 온 거야. 여기서 지내게 해준 빛은 나중에 꼭 갚을 테니... 나한테 괜한 기대는 하지 마.

집안으로 들어가는 순이.

지태 (비열한 미소)기집애 거 깝쟁이야...

11. 별장[순이 방/명수 방/엄마 방] _ 밤

이부자리에 누운 순이.
 엄마가 순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엄마 (졸린 듯)약은?

순이 아까 먹었잖아.
 엄마 냄새는?
 순이 이상해,
 엄마 먼지는?
 순이 몰라.
 엄마 엄마가 내일 여기 청소 싹 할 거니까 좀 괜찮아...(하품) ... 괜찮아 질 거야.
 순이 가서 자,
 엄마 그래야겠다. (일어서 창문을 살짝 열어 놓으며) 고단하다 고단해..

방 밖으로 나가는 엄마.

엄마가 나간 문을 잠시 바라보는 순이.

순이 (혼잣말) 나 같은 건 왜 낳아 가지고 이 고생이야... 살아서 뭐해. 식구들한테 짐만 되고...

이불을 한껏 휘감는 순이, 이불 냄새를 맡아본다.

그 순간.

창 밖에서 들리는 부스럭 소리.

순이가 창문을 바라본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다시 이불을 고쳐 덮는 순간, 수풀을 지나는 부스럭 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명확히 들린다.

벌떡 일어나는 순이.

잠시 고요함.

순이가 조심스럽게 다시 자리에 누우려는데

이번엔 더 커진 발자국 소리와 그르렁~ 짐승의 숨소리까지 들린다.

- 방문을 박차고 나오는 순이.

- 영수 방문을 덜컥 연다.

순이 (명수를 흔들며) 명수야. 일어나봐.

명수 ... (눈감고 누워 꿈쩍 않는다)

순이 야 일어나 보라니까! 밖에 꿈이 있는 거 같애. ...일어나봐 좀!!

명수 (갑자기 눈뜨고) 엄마!!! 누나가 나 자는데 괴롭혀!!!

명수를 한 대 쥐어박고 싶은 순이의 표정.

- 엄마 방문을 연다, 대자로 뻗어 자고 있는 엄마.

순이 (흔들어 깨우며)엄마. 엄마 잠깐 나와봐.

잠에 취한 눈으로 벌떡 일어나는 엄마.

순이 엄마 밖에 뭐가 있어.

엄마 아이고... 밖에... 뭐가... 어디... 어디...

주워 옷을 주섬주섬 챙기는 엄마.

순이는 엄마를 안내하려는 듯 방문을 나서려다 뒤를 돌아보자

엄마는 앉은 채로 다시 잠들어 있다.

엄마가 딱한 듯 제대로 눕히는 순이.

12. 별장[마당/헛간] _ 밤

순이가 마당을 조심스레 걷는다. 손에는 흰 장갑.

옆에 보이는 샵을 집어 들고 주위를 살핀다.

저 뒤쪽에서 부스럭 소리가 들린다, 그 쪽을 돌아본다.

다른 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그 쪽을 돌아본다.

헛간 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그르르릉... 짐승의 낮고 굵은 숨소리.

쇠문이 닫히는 듯 끼이익-

헛간으로 천천히 다가가는 순이.

헛간 앞, 내키지 않는 듯 잠시 주저하다 안으로 한걸음 내딛는다.

어둡고 더러운 그곳, 양쪽 철망사이로 난 길, 그 끝에 보이는 철문.

멈춰 서 두리번. 얼굴을 찌푸리며 손등으로 코를 막는다.

헛간 안쪽에서 또 다시 소리가 들린다.

이번엔 무서운 소리가 아닌 편한 곳에 들어와 안심하며 내쉬는 소리. 동굴처럼 메아리쳐 울린다.

철문을 향해 더 나아가는 순이.

철문 앞, 다섯 개의 자물쇠가 모두 뒤물려 부서져있다.

옆에 널브러진 양동이를 발견하는 순이.

그리고 옆에는 시커먼 똥덩이.

순이가 똥덩이를 잠시 바라보는데

그때 순간 철문 안에서 짐승의 소리가 들린다. 마치 거대한 고양이가 가르릉 거리는 듯.

순이 잔뜩 긴장해 침을 삼킨다.

용기를 내어 철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본다. 끼이익~ 쇠소리를 내며 열리는 철문.

그 안에서... 무언가 순이를 바라보고 있다.

어두워 잘 보이지는 않지만 크고 검은 털복숭이, 등이 구부정한, 눈동자가 회색으로 빛나는 괴물.

순이는 온 집안이 떠나가라 비명을 지른다.

순이의 비명에 놀라 괴물도 울부짖는다. 공룡, 코끼리, 늑대의 울부짖음을 뒤섞은 기괴한 울음소리.

긴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치는 순이에게 괴물이 달려든다.

순이는 어설피게 삼을 휘두르다 괴물에 스쳐 넘어진다.
헛간 밖으로 도망가는 괴물.

- 마당으로 뛰쳐나오는 엄마와 명수, 순이의 목소리를 듣고 헛간으로 달려간다.
- 그 때, 언덕 위 나무들 사이, 별장을 내려다보는 누군가의 시선.
엄마와 명수가 순이를 부축해 나오고 있다.
거칠고 지저분한 숨을 내뿜는 시선의 주인.

13. 별장 [마당] _ 낮

정씨 큰일날뻔했구만!! 날 부르지 그랬어요!
할머니 이리가 한 마리 더 있었는지 누가 알았어~ 그래 순이 다친 데는 없고?
엄마 네. 그냥 무릎 좀 까지고...

멀찍이 빨래를 널고 있던 순이가 괜찮다는 쓴 웃음을 보인다.
그 순간 순이 뭔가를 느낀 듯 두리번거린다.

할머니 (사발그릇 건네며)이거 아침에 삶은 건데, 좀 먹어봐.
엄마 (보면 삶은 감자)뭘 이런 거를... 잘 먹을게요. (정씨에게)다시 안 오겠조 뭐~
정씨 (자리를 뜨며)그나저나 우리 염소들 안 잡아 먹힐라나 모르겠네...

할머니와 정씨를 배웅하는 엄마, 순이 걸으로 돌아와 빨래를 널기 시작하며

엄마 힘든데 뭘 해... 이런 거안해도 되니까 들어가서 공부를 하던지. 응? 아니면 운동되게 동
네 한 바퀴 슬~ 돌던지...

주위를 살피던 순이, 창고 쪽 뭔가를 보고 표정이 굳는다.

엄마 대학은 안가도 고등학교 졸업장은 따고... 그래야 미국 이모네 가서도...
순이 (속삭이듯)조용!
엄마 응?
순이 엄마... 소리 지르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저쪽 봐봐.
엄마 어... 어디?
순이 오른쪽... 저쪽에 나 보는 쪽.

엄마가 돌아보면 마당 한편, 창고쯤 되는 곳, 나무판자로 덮여 그늘져 어두운 구석.
그곳에서 무언가 웅크려 앉아 순이를 보고 있다.

엄마 저거 뭐야... (소리치려)저... 정씨...(멀리 가버려 안 보이는지)

엄마가 혈레벌떡 옆에 쓰러비틀 울켜준다.

그 어두운 실루엣이 짐승의 숨소리를 내며 뒤로 흠칫 물러선다.

엄마 저거야? 어제 밤에 본 게?

순이 몰라...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순이가 실루엣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다.

실루엣이 한 걸음 물러난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순이.

더 물러서는 실루엣.

순이 가! (손을 휘저으며) 어어!! 휘!! 휘!!

꿈쩍 않는 검은 실루엣.

순이가 다시 한걸음 물러서자

너댓 걸음 다가오는 실루엣, 그 순간 그림자를 벗어나 밝은 곳으로 실루엣의 얼굴이 드러난다.

사람의 얼굴.

그리고 네발로 기어 더 앞으로 나오자 몸 전체가 드러난다.

누더기를 입고 어른보다 큰 덩치의 소년. 슬프고 커다란 눈을 가진 곱상한 얼굴.

하지만 평생 세수를 한 번도 안한 듯 더러운 피부.

순이 ... 사람이잖아.

엄마 응? (빗자루를 슬며시 내려놓는다)

순이 누구세요?

소년

엄마 (다가와) 누구세요?!!

소년

엄마 말... 못해요?

대답 없는 소년, 잔뜩 겁먹은 얼굴로 순이와 저쪽 구석을 번갈아 본다.

소년이 보는 것은 삶은 감자 그릇.

엄마는 삶은 감자를 하나 들고 와 보여준다.

순이는 소년에게서 냄새가 나는지 코를 막으며 물러선다.

엄마 (감자를 들고 다가가며)이거?

순이 (속삭이듯)엄마 뭐해!

엄마는 소년에게 삶은 감자를 하나 던진다.(건네주려다 무서운지 던진다)

소년은 삶은 감자를 잡아 입에 쑤셔 놓자 3초 만에 감자가 없어진다.

순이와 엄마 슬쩍 놀란다. 하나를 더 던져 주는 엄마.

순이 그만해. 가라 그래.

또 소년의 입에 넣자마자 사라지는 감자.

엄마는 감자 그릇을 통째로 소년 앞으로 밀어 넣는다.

소년은 성큼 다가와 (순이와 엄마 겁먹고 뒤로 물러난다) 감자들을 닥치는 대로 입에 넣는다.

소년을 혐오스럽게 바라보는 순이.

- 빨래를 널고 있는 순이와 엄마, 둘의 표정이 어딘가 난처해 보인다.

마지막 빨래를 널고 바구니를 챙겨 드는 순이와 엄마.

돌아보면 소년이 계속 응크려 앉아 이쪽을 바라보고 있다. (앞에는 삶은 감자 부스러기들)

순이 재 왜 안가...

14. 별장[거실] - 낮

거실 구석에 구부정 앉아 있는 소년. 사람들을 보며 긴장한 듯.

정씨 말을 못해요?

지태 뭘 보고들 셧어요?! 거지 자식 아니야~ 쫓아 버려!!

엄마 그래도 보기가 딱해서... 한동안 못 먹고 다닌 거 같은데.

지태 못 먹은 놈이 저렇게 덩치가 커?

엄마 (경찰에게) 어떻게 해요?

보면 경찰은 연필에 침을 발라 작은 수첩에 뭔가를 적고 있다.

경찰 (혼잣말) 성명... 불명.... 나이...불명... (연필심 부러진다) 뿌러졌네. 아줌마 칼 없어요?
연필깎이라도...

엄마 뭐해요. 애 어떻게 하나니까~

경찰 아... 음... 근데 이런 애 데려가면 소장님한테 혼나는데.

엄마 네?

경찰 저기... 실제로 우리 서에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전쟁 때 버려져서 제대로 못
큰 애들이 한 들어야지. 신문 보니까 6만 이래 6만, 우리나라에 고아가~

이야기 도중 경찰수첩에 끼워둔 연필이 바닥에 떨어진다.(아무도 눈치 채지 못한다)
연필을 유심히 보는 소년.

경찰 ...고아가~ 아줌마, 여기는 미국이 아니야. (한숨)그냥 내 보내세요.

점씨 고아원 같은 데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경찰 고아원(한숨)... 아줌마 고아원 안 가보셨지? 완전히 콩나물시루야. 그리고 이런 나이 먹은 애들은 금방 도망쳐서 애초에 잘 안 받아. 보니까 열 일고어덜은 됐는데 뭐. 얼굴은 애긴데... 나보다 두 뺨은 더 크겠다. (손사레)안돼 안돼...

잠시 내려다보던 경찰,

경찰 가만 있어봐... 이마에 뭐 상처가...

경찰이 소년의 얼굴을 살피려 손을 뻗자
소년은 화들짝 물러서며 그르르... 위협의 숨을 뱉는다.

경찰 깜짝이야. ... 왜 이래? 맞고 자랐...

엄마 그래도 일단 데려가서 뭐 좀 알아봐야죠. 경찰이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경찰 경찰이 그런 거 하는 건 맞는데... 그런 거 하면 소장님한테 혼나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하는 엄마의 표정.

지태 그냥 내쫓으라니까요!

지태에게도 짐승 특유의 공격적인 표정을 짓는 소년. 그르릉-

지태 어?~ 이 자식이 미쳤나...

경찰 아무튼 저... 내가 알아볼 테니까 그때까지 데리고 계시던지.

소년을 내려다보는 엄마의 난감하고도 측은한 눈빛.

- 벽 모서리 뒤에 숨어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순이.

소년과 눈이 마주친다.

훔칫 시선을 피하는 순이.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자리를 뜬다.

15. 군청 _ 낮

접수대 앞에서 뭔가 열심히 적고 있는 엄마. 건너편에 공무원.

소년은 뒤쪽 의자에서 발을 올리고 웅크려 앉아, 뭔가를 꼼지락 거린다.

보면 부러진 연필(경찰의 것)을 심이 보이도록 손톱으로 벗기고 있다.

공무원 입소 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3부, 초본 2부, 소득증명서.

엄마 (적다가) 소득이요? 제가 소득이 일정치가...

공무원 (무시)원천 징수 표, 확정 신고서 사본, 과세증명서, 보육근란 증명서, 취로 증명서, 보호 아동 상황 조사서. 이걸 조사원 실사신청을 먼저 하셔야 되구요. 그 답에~

엄마 보호 아동... 저.. 제가 보호자 아닌데요. 오늘 아침에 집 앞에서...

공무원 그럼 경찰서 먼저 가셨어야지.

엄마 경찰에서 이리로 가라고 하던데요.

공무원 그냥 보호자라고 치고 보육근란으로다가 해서 보내는 게 젤 빨라.

엄마 보호자가 있으면 왜 고아원에 보내요.

공무원 이 아줌마 자꾸 말이 도네 돌아~

공무원이 철수를 잠시 보더니 순이 엄마를 손짓으로 부른다.

공무원 (속삭이듯)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엄마 뭔데요?

공무원 제가 좀 더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지.

엄마

16. 마을길 _ 낮

정씨의 작은 3륜 트럭이 마을길을 달린다.

정씨 그래서 얼마를 줬는데요?

엄마 ...오천원이에요

정씨 네?! 아유 그 도둑노무 자식들~ ...(냄새)큁큁... (철수를 보며)일단 좀 씻겨야 겠네.

엄마와 정씨 가운데 끼어 있는 철수. 아직도 연필에 나무를 심이 보이게 손톱으로 벗기는 중.

17. 별장[거실] _ 저녁

노래를 흥얼거리며 현관을 뛰어 들어오는 명수.

신발을 벗던 중. 원가를 보고 화들짝 놀라 뒤로 자빠질 뻔.

명수 뭐야?!!!!!

보면 소년이 소파 나무 손잡이에 작게 연필로 원가 꼬적이고 있다. 검게 써지는 게 신기한 듯.

엄마 명수야 그 형 좀 씻겨라.

18. 별장[욕실] _ 저녁

욕조 타일 바닥으로 땀 국물이 흘러내린다.

땀을 뿜뿜 흘리며 소년의 등을 밀고 있는 명수.

명수 (힘들다) 형 이 정도는 혼자 할 수 있지 않아요? ... 네? ... 형?

보면 소년은 즐고 있다.

체념하고 다시 등을 닦기 시작하는 명수.

19. 별장[거실] _ 저녁

주방, 간신히 화를 누르고 있는 순이의 얼굴.

저녁상에 찌개를 내려놓는 엄마.

순이 (불만)그 애 어떻게 할 거야?

엄마 엄마가 오늘 군청 가서 다 얘기 했으니까 금방 연락 올 거야.

그때 명수 방문이 열리고 소년과 명수가 나온다.

씻고 나니 제법 보기 좋은 소년, 하지만 옷이 작아 찢어질 듯하다.

소년이 밥상을 발견하고 달려든다.

밥그릇을 물마시듯 입에 부어 넣고 반찬들을 손으로 헤집어 놓는 소년.

소년의 야만적 식사를 넋 놓고 바라보는 순이와 가족들.

소년은 찌개를 냄비 째 마시고 있다.

명수 뜨겁지도 않나봐.

엄마 아이고~ 얼마나 굶었으면...

순이 그래서 연락 오기 전까지 어떻게 할거냐고.

엄마 순이야 그렇다고 다시 내쫓기도 그렇잖니. 군청에 그분이 그쪽으로 가는 사람이 많데. 빨리 알아봐 주신다니까... 그때까지만... 잠깐만 데리고 있을까?

순이 뭐?!

엄마 딱 며칠만... 아예 안 봤으면 몰라도 한 번 들었는데 당장 갈 데도 없는 애를 어떻게 내치니~ 그럼 벌 받는다. 엄마가 꼭...

손가락을 탁 내려놓는 순이.

밥상에서 일어나 방(2층)으로 올라간다. 잠시 후 문 닫는 팡! 소리.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 듯 먹기를 멈추는 소년.

눈치 보며 슬며시 불에 물은 밥풀을 떼어 입에 넣는다.

20. 별장[빈 방/순이 방] _ 밤

- 늦은 밤, 별장의 전경.

방 안, 잠옷을 입고 우두커니 웅크려 앉은 소년.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불안한 듯 방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가는 신음을 내 뱉는다.

창 밖에 구름 사이로 보이는 달.

소년이 천천히 목을 펴 숨을 들이쉬고

우렁찬 괴성을 내지른다.

문 밖에서 들리는 명수의 목소리. '웬 공룡소리야!'

부스스 잠에서 깨어난 엄마가 문을 벌컥 연다.

엄마 애!! 너 똥 이상한 소리할... 뭐하는 거야~ 밤에 그러는 거 아니야~

- 순이의 방, 누워 귀를 틀어막고 있는 순이.

밖에서 소년을 다그치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린다.

또 다시 짐승 같은 긴 울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진다.

순이는 짜증이 폭발, 베개를 주먹으로 힘껏 내리친다.

순이 아유!!!!

21. 별장[거실] _ 아침

여전히 밥상을 난장판으로 만들며 식사 중인 소년.

맞은편에 엄마와 명수, 역시 편하게 식사를 하지 못하는 듯.

명수가 콩나물에 젓가락을 델라 치면 소년의 손이 한 움큼 집어가고

김에 젓가락을 델라 치면 소년의 손이 한웅큼 집어간다.
엄마와 명수의 얼굴에 밥풀이 날아와 불고 김치국물이 튈다.

명수 엄마... 젓가락을 델 수가 없어.
엄마 잘 피해서 먹어봐. ...순이는?
명수 이 형이랑 밥 안 먹는데.

22. 별장[거실] _ 낮

계단 옆 거실 구석, 아직 풀지 상자들이 쌓여 있다.(기동 식 옷걸이, 작은 선반장 등)
순이가 옥수수를 한입 물고 씹으며 상자를 열어 본다.
이런 저런 책들 사이 '고1'이라 쓰여진 수학 교과서가 보인다.
순이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진다.
더 뒤져 보니 '애견 훈련법'책도 보인다.
그 때 엄마가 다가와

엄마 엄마 원고 좀 보내러 읍내 우체국 간다.
순이 (통명스럽게)언제와.
엄마 금방 와.개는 너무 신경쓰지 마. 엄마가 금방 잘 해결할게. 근데 우리 딸 이제 슬슬 공부 시작해야지?
순이 ... (잠시 참다가)지금 하려고 찾고 있잖아. 내꺼 어딴어?

- 상자들 중, 제일 밑에 깔려 있는 작은 상자에 '순이 책'이라 쓰여 있다.
위쪽 두 개의 상자를 치워보려는 순이, 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다.
그 순간 순이 위로 드리워지는 검은 그림자.
순이 화들짝 놀라 돌아보면 원시인처럼 구부정하게 소년이 서 있다.

순이 저리 가.

소년이 옥수수를 바라본다.

순이 (옥수수를 뒤에 감추며)가라니까.

소년이 다가가자 순이가 뒷걸음질 치다 옆으로 넘어진다.
상자와 옷걸이를 넘어뜨리고 이를 보따리 위로 쓰러지는 순이.
순이를 향해 몸을 숙이는 소년.
순이는 비명을 지르며 마구 주먹을 휘두른다.

소년이 순이의 주먹을 맞으며 상자 두 개를 들어 올린다.(너무나 가볍게)
잠시 멍하던 순이가 얼른 맨 아래 '순이 책'상자를 꺼낸다.

순이 (마지못해)고... 말한다.

들고 있던 상자를 생각 없이 내팽개치는 소년.
소년은 순이에게 한번 그르르... 소리를 내고는 바닥에 옥수수를 주워든다.
다시 거실 구석으로 웅크려 앉는 소년.
순이가 민망한 듯 헛기침을 하고 상자를 열어 보려는데

지태 아무도 없어?

그때 현관문 열리고 지태가 들어온다.
순이는 지태를 못 본 척, 다시 상자를 쌓아 올리려 한다.

지태 비켜 봐. 집안에 남자가 없어 가지고...

지태가 상자하나를 들어 올리려 한다. 하지만 꿈쩍도 않는 상자.

지태 (갑자기 짜증)아니 집안에 여자가 들인데 아직 정리들도 안하고 뭐하는 거야? (소년을 발견)
저건 아직도 있네?
순이 가요. 나 지금 공부해야 돼.
지태 (한숨)검정고시? 그거 해서 뭐하니? 그냥 나랑 살면서 된장찌개나 맛있게 끓일 것이지. ...
나 지금 서울 올라간다. 한 며칠 못 볼 거야. ...응?

순이가 무시하고 책 정리 하고 있을 때

지태 (순이 팔목을 잡아 올리며) 들고 있다는 표현을 좀 해라.
순이 놔.
지태 이리 와봐. 나가면 보고 싶을 거잖아. 그러니까...

그 순간, 순이의 팔목을 잡고 있던 지태의 팔목을 잡는 소년의 손.
소년이 콧잔등을 웅크리고 이를 드러내며 짐승의 숨소리를 내뿜는다.
갑자기 얼굴이 고통스러운 듯 비명을 지르는 지태. 빠드득- 삐 소리.

지태 악!!!!

뒤로 넘어지는 지태, 소년이 서서히 지태에게 다가간다.

지태 뭐야 이거... 너... 너... 너 봐..너...

현관 밖으로 나가는 지태.
심드렁하게 옥수수를 한입 베어 무는 소년.
가만히 소년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순이.

23. 별장[순이 방/거실] _ 저녁

- 노을이 드리운 별장의 모습.
- 순이가 방에서 책을 보고 있다. <애견 백과>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책을 덮고 일어선다.
- 저녁 식사, 엄마, 명수, 철수.
철수는 여전히 마구잡이로 음식을 헤집어 놓고 있다.

엄마 아무래도 애는 밥을 따로 줘야겠다.
 명수 이 형 오늘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 도망갈 줄 알았는데...
 엄마 그래도 먹을 때 빼곤 암전히 잘 있더라.
 명수 엄마 근데 이 형 이름 없어?
 엄마 엄마도 모르지. 말을 해야 알...
 순이 (단호하게) 기다려!

보면 어느새 다가온 순이, 소년을 향해 소리친다.
들은 척도 않고 반찬을 집어 드는 소년.

순이 (반찬 그릇을 빼앗고)기다려!!

소년은 잠깐 순이를 보더니 다시 먹기 시작.

명수 누나 뭐해?...
 순이 (밥그릇도 빼앗고) 기다려!!!

순이에게 으르렁 거리는 소년.
순이는 겁을 먹고 밥그릇을 다시 놓는다.
계속 먹는 소년.

24. 별장[주방] _ 낮

순이가 냄비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삶은 감자들.

순이 엄마. 개 어디갔어?
 엄마 (상에 앉아 원고 교정을 보다가) 개? 아 철수?
 순이 철수?
 엄마 응 일단 철수라고 부르기로 했어. 명수, 철수.
 순이 철...(어색)철수... 어디 갔어?
 엄마 명수가 데리고 나갔어.

25. 동석이네 집/뜰판 _ 낮

동석 할머니 집 앞에 선 명수와 소년 철수(이하 철수).

명수 할머니 동석이 있어요?
 할머니 동석이? 동식이가 아니고 동석이야.
 명수 동석이 있어요?
 할머니 (철수를 잠시 보더니) 저래 셋겨 노니까 이쁘장하구먼. (집안을 향해) 동석아~

런닝 차림의 동석이 아궁이 쪽에서 쭈뼛쭈뼛 나온다.

동석은 명수를 보고 어색한 듯 괜히 나무기둥을 긁고 명수도 별로 할 말이 없는 듯 돌을 발로 툭툭.

동석의 뒤로 동미가 묘를 훑으며 스욱 나타난다.

구부정하게 서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철수.

명수 너 구슬 몇 개냐?
 동석 ... 구슬 없어.
 명수 (왼쪽 주머니에서 구슬을 꺼내며) 내가 다섯 개 줄 테니까 구슬 따먹기 하자.
 동석 ... 나 구슬 잘 못해.
 명수 (오른쪽 주머니에서 발포 야구공을 꺼내며) 야구공도 있어. 내가 갈켜 줄게.

동석이 쑥스러운 걸음으로 나온다. 동미도 오빠의 손을 잡고 따라 나온다.

아무 말 없이 옆에 나무 뿔감 중 굵은 것을 하나 골라잡는 동석.

동석이 갑자기 어딘가로 달린다.

명수가 뒤따라 달린다.

동미도 따라 달린다.

철수도 주저하다 따라 달린다.

- 서로 경쟁하듯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는 명수와 동석.
 바로 뒤에서 영문을 모르고 달리는 철수.
 저 뒤쪽에서 오던 동미가 "오빠!!!"를 부르며 달려오다 넘어진다.
 얼굴이 흙 범벅이 되어 울음이 터지는 동미.
 동미를 돌아보는 철수.
 철수는 망설이다 돌아와 동미를 짐짝처럼 어깨에 짊어진다.
 갑자기 깔깔 거리며 좋아하는 동미.

- 언덕에 오른 명수와 동석. 시원하게 펼쳐진 푸른 들판과 얇은 언덕들. (강원도 양떼목장 같은 경치)
 명수가 천천히 공을 던지고 동석이 나무를 휘두르지만 헛스윙.
 동석이 얼른 공을 주워 명수에게 던진다.
 다시 던지려는 명수의 투구폼.
 철수는 한쪽에서 연필로 땅바닥에 그림을 그리고 있다. 나무를 그리는 듯.

동미 (울며)혼자 논다고 할머니한테 다 일들거야!!
 동석 (동미를 잠시 보다가 명수에게) 나 한번만 하고 동미가 친다?
 명수 그래.

갑자기 밝아지는 동미의 표정.
 명수가 공을 던지고 동석이 친다.
 땅! 하여 멀리 날아가는 공.
 순간 공을 보는 철수의 눈빛이 달라진다.
 아이들이 날아가는 공을 바라본다.

동석 훌쩍이야.
 명수 아냐. 2루타야. 다음에 동미 해. 그 다음에 철수 형. ...(두리번) 어? 철수 형 어디갔지?
 동미 (저 멀리를 향해)철수 오빠!!

보면 저 멀리 철수가 어느새 공을 입에 물고 서 있다.

동석 달리기 진짜 빠르다.
 명수 형! 공 던져.
 철수 ... ??
 명수 형! 던져. 세계. (던지는 시늉) 멀리!

철수가 공을 던진다.
 공은 높이 떠올라, 아이들 머리 위를 지나, 300미터는 더 떨어진 정씨네 집 근처로 날아간다.
 사라져 버린 야구공.
 철수를 원망하는 아이들의 얼굴,

눈치 보는 철수.

순이 야! 너네들 왜 불러도... 대답을(헐떡이며 다가온다)

보면 순이가 언덕을 올라오고 있다. 치마 주머니가 볼록해 우스꽝스럽다.

명수 (주머니 보며)그건 뭐야?

- 순이가 주먹에 뭔가를 쥐고 있다.

순이 철수야... 이제부터 철수라고 부른다? ...철수야, 내가 '기다려' 하면 먹지 말고 기다리는 거야.
알았지? 먹으면 안돼~ 자...

순이가 서서히 주먹을 펴자 손 위에 작은 삶은 감자.

순이 자... 기..

철수가 번개처럼 감자를 낚아채 입에 쑤서 넣는다.

순이 다려...

동석 (따분한 지)야. 염소 보러 가자.

명수 염소?

동석 응. 염소 막 공책도 먹어. 근데 다 쓴 거 줘야 돼. 새거 주면 혼나.

명수, 동석, 동미가 염소 이야기하며 자리를 뜬다.

순이는 다시 주머니에서 감자를 꺼내 쥘다.

순이 '기다려'하면 먹지 말고 응? 기다리라고(입에 넣는 시늉, 손사레) 먹지 마.

순이가 주먹을 펴 감자를 보인다.

철수가 달려들자 이번엔 얼른 낚아채 피하는 순이.

순이 기다리라고 이 멍청아!!!

순이에게 으르렁 거리는 철수.

순이 (슬쩍 겁먹고)뭐!! 어쩔건데!!!

철수가 순이의 손가락을 열어보려 한다.

힘주며 주먹을 펴지 않는 순이.
옆으로 넘어지며 텅구는 철수와 순이, 철수는 순이의 주먹채로 입에 넣는다.

순이 악!! 기다려!! 야!! 기다려!!!

순이 손등에서 피가 흐른다. 약간의 상처.
상처를 보고 놀라 뒤로 물러서는 철수.
침과 피로 범벅된 자신의 주먹을 보며 잔뜩 화난 순이. 일어선다.
간신히 분을 삭히고 다시 손을 펴는 순이. 안에는 뭉개진 삶은 감자.
다가가려던 철수, 그 순간 순이가 소리친다.

순이 기다려!!!

철수가 흠칫 놀라 멈춘다.

순이 너... 내 손....씨... 근데 잘했어. 그렇게 기다리는 거야. 자... 이제 내가 '먹어'하면 먹는 거야. 알았지? (먹는 시늉) 응? '먹어'라고 말하면 먹는 거야. (철수가 다가오자 물러서며) 기다려!!! 아직 아니야... 그렇지... 먹어.

철수 ... ??

순이 먹으라고.

철수

순이가 철수의 입에 감자를 억지로 쑤셔 넣는다.

순이 먹어! 하면 이렇게 먹는 거야!

철수가 눈치를 보며 우물우물 감자를 먹는다.
순이가 철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손을 뻗자 철수 흠칫 물러난다.

순이 가만 있어봐. 이렇게 하는 거래. 이리 와 봐.

순이가 덩싹 철수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낮설고 신기한 느낌인 듯, 순이를 뻔히 바라보는 철수.

순이 (머리 쓰다듬으며)잘했어... 우리 철수 잘했다~ 그렇게 하는 거야~ 너 이뻐서 이려는 건 아니야. 알지? 너랑 밥 먹기 너무 짜증나서...(철수가 획 돌아보자) 아냐. 아냐. 잘했어~

순이는 철수 머리를 쓰다듬은 손 냄새를 맡고 인상을 찌푸린다.
감자를 하나 더 꺼내는 순이.

순이 자~ 한 번 더.

26. 별장 [주방-거실] _ 낮

비누칠한 손을 씻는 순이.

손등에 찰과상을 살필 때 다가오는 엄마.

엄마 (먹다 남은 옥수수를 들고)마루 장롱 뒤에 누가 이걸 끼어 났어. 버린 건지 숨겨는 건지...

니가 그랬니?

순이 ... 몰라.

순이 뭔가 각오한 듯, 크게 호흡하고 자리를 뜬다.

- 거실 밥상에 앉은 엄마, 명수, 동석, 동미.

순이가 합류해 앉는다.

엄마 너 웬일이니... 철수 오면...

순이 괜찮아. 불러.

엄마가 명수에게 고개를 끄덕인다.

명수는 결연한 표정으로 일어서 철수의 방 문고리를 잡는다.

엄마가 손으로 밥그릇을 가리고 동석, 동미에게 눈짓한다.

동석과 동미도 엉겁결에 손으로 밥그릇을 가린다.

명수가 방문을 열자, 콜로세움의 사자처럼 튀어 나와 밥상으로 돌진하는 철수.

가족들 모두 긴장하는 그때

순이 (나지막이) 기다려...

철수의 동작이 멈춘다. 조용히 앉아 밥그릇과 순이를 번갈아 보는 철수.

순이와 철수를 번갈아 보는 가족들.

수저를 들고 우아하게 식사를 시작하는 순이.

순이 (철수에게) 먹어.

철수도 조심스럽게 밥을 한웅큼 쥐고 입에 넣고 먹기 시작.

반찬에 손을 가져가려는 철수.

순이 기다려.

그대로 굳어 순이만 바라보는 철수.

순이 먹어.

천천히 반찬을 집어 입에 넣는다.

언제 '기다려'가 나올지 몰라 조마조마하며 식사를 하는 철수.

순이 (철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유~ 착하다 우리 철수.

가족들 모두 얼이 빠져 그 광경을 보고 있을 때

순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가족들을 향해) 뭐해? 밥들 안 먹고.

가족들과 동석, 동미 조심스레 수저를 든다.

27. 별장[순이 방] _ 밤

이부자리에 누운 순이.

엄마는 방문을 닫고 나가려다 다시 열고는

엄마 아까 철수한테 어떻게 한 거야? 갑자기 말을 잘 듣고...

순이 하긴 뭘해... 그냥 한번 혼내 줬지. 아 몰라 귀찮아. 나 잘 거야.

엄마 응 그래 그래. 자 얼른.

문을 닫고 나가는 엄마, 어둠 속에서 잠시 누워 있던 순이.

슬며시 일어나 스탠드를 바닥으로 가지고 내려와 켜다.

베게 뒤에 숨겨놓았던 책을 꺼내 편다.

<애견 훈련 백과>

28. 별장[마당/욕실/방] _ 낮

마당에 웅크려 앉아 화분에 꽃을 바라보는 철수. 손가락으로 툭툭 만져본다.

순이 철수.

좀 떨어진 곳에서 소리치는 순이.(빨래를 걷다가)
철수는 들은 척도 안하고 꽃만 본다.

순이 철수!
철수(솔쩍 돌아본다)
순이 그렇지! 너 말이야. 철수 너. 너 부른 거야. 이리 와.(손짓)
철수(다시 꽃으로 시선)
순이 철수!!!

- 거실, 평상에서 일하던 엄마, 순이 목소리에 가우뚱.

순이 철수! 이리와 (손짓)

철수는 일어서 천천히 순이에게 다가가 선다.

순이 그렇지! 그래! 철수야 나한테 와.

순이는 까치발을 들어 철수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순이 잘 했어. 그게 니 이름이야. 철수. 부르면 오는 거야.
철수(희미한 미소가 번진다)
순이 (얼른 옷에 손을 닦으며) 철수... 제법 하는데? (빨래 바구니)이거 좀 들어봐.

- 욕실, 이를 닦는 순이, 옆에서 어설픈게 따라하는 철수.

'이렇게 이렇게 닦아'하는 순이의 시늉.

순이를 보며 따라하는 철수.

순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잘했어. 철수. 다 했으면 뱀어 이렇게.

순이는 치약을 뱀는다. 하지만 철수는 이미 치약을 삼켜 남아있지 않다.

- 이불을 개는 시범을 보이는 순이.

옆에서 비슷하게 해 보려는 철수.

이불을 개서 장롱에 넣는다. 철수도 넣는다.

머리를 쓰다듬는 순이. 배서시 옷은 철수.

- 신발 끈을 묶는 순이.

너란히 앉아 같은 신발 다른 쪽 끈을 묶는 철수. 어설픈게 리본까지 만들어 묶는다.

순이 잘했다. 철수.

철수가 순이 앞으로 스윙 머리를 내민다.

'뭐하자는 건가?'하고 순이는 당황하지만 곧 억지웃음을 지으며 머리를 쓰다듬는다.

- 휴지통에 휴지를 버리는 철수.

철수가 머리를 내민다. 쓰다듬는 순이.

- 밥그릇을 설거지통에 넣고 머리를 내미는 철수.

기계적으로 쓰다듬는 순이. 슬슬 지켜워하는 얼굴.

29. 별장[거실/마당] _ 낮

철수가 벽에 못을 박으려 한다.

구부정한 자세가 어느새 많이 꼳꼳해진 철수.

엄마 그렇지. 망치로 쳐봐.(망치로 치는 시늉)

철수가 망치를 세게 친다. 광!!

못이 머리까지 완전히 벽에 박혀 버린다.(조금 튀어나온 부분도 없어 액자를 걸 수 없다.)

순이 (한숨)그렇게 말고 이만큼 남겨야지. 반만 나오게...

철수는 잠깐 못을 보다가 망치를 던져 놓고 손으로 못을 누른다.

두부에 찌르듯 쑥 들어가는 못.

명수 우와!!!

엄마 (어색한 웃음) 잘했어.

순이 (어색한 웃음, 철수를 톡톡 치며) 잘했어...

미소 짓는 철수, 손으로 못을 한 개 더 박아 넣는다.

순이 잘... 잘했어.

또 못을 박아 넣는 철수.

순이 (정색) 그만해라 이제.

그때 마당 쪽에서 들리는 동석의 목소리.

동석 명수야! 놀자!

명수가 빈개같이 창밖을 확인하고는 달려 나간다. 운동화를 신는 듯 마는 듯.
철수도 창 밖 마당을 돌아보고는 순이에게 뭔가 아쉬운 시선.

순이 놀다 와.

철수 우물쭈물 나가지 않는다.

순이 (알면서 모르는 척)왜? 뭐?

철수가 순이의 옷자락을 슬쩍 잡아끈다.
이번엔 순이가 엄마에게 뭔가 아쉬운 시선.

엄마 놀다 와. ...살살 다녀. 저번처럼 또 뛰다가 쓰러지지 말고...

철수, 순이 동시에 마당으로 달려 나간다.

- 마당에 모인 순이, 철수, 명수, 동석, 동미.
명수가 나눠 준 '해태 카라멜'을 씹고 있다.
카라멜 두 개를 받아든 철수. 카라멜을 잠시 보고 있을 때.

동미 철수 오빠 이거 가져.

동미는 작은 고무 그릇을 올려 보인다. 가득 담긴 흙 속에 보이는 새싹.

동미 콩이야. 물 주면 더 커.

어디론가 달려가는 아이들. 뒤 따르는 순이.
콩 싹 화분을 유심히 보던 철수, 멀어지는 아이들과 순이를 발견하고 얼른 달려간다.

30. 염소 농장 - 낮

우물우물 종이를 씹고 있는 염소의 얼굴.
물타리 앞에서 염소들에게 공책을 주고 있는 아이들.

순이만 빼고 모두 공책종이를 두어장씩 들고 있다.

순이 야! 너 엄마한테 혼난다.
명수 괜찮아. 다 쓴 거잖아.

잠시 보던 순이, 부러운지 명수 손에 공책을 재빨리 찢어 간다.

명수 뭐야! 내꺼데!

- 옹기종기 모여 염소에게 공책을 주고 있는 다섯.
턱을 좌우로 돌리며 씹는 염소들.(초식동물 특유의 씹는 모습)
다섯 모두 자기도 모르게 그 모습을 흉내내고 있다. 턱을 좌우로 돌리며 씹는 시늉.
매에에~~ 염소의 울음소리.

동미 (흉내낸다)애애애애-
동석 그거 아니야. 이거야. 애해해앵~
명수 (심각하게)야, 이거야! 매해해해해앵~ 맞지 누나?
순이 응?... 뭐...
명수 누나 해봐.
순이 (철수 의식하며 피식) 하긴 뭘해...
동석 해봐!
동미 해봐! 애애애애~ 이렇게지?

속스러운지 망설이는 순이.
모두 순이의 염소흉내를 기다리고 있다. 철수도 기다리고 있다.

순이 흠... 그러니까... 내가 듣기에는 미애해해해해....

아이들 모두 비웃듯 피식하며 시선을 돌린다.
괜히 얼굴이 화끈 거리는 순이, 흠칫 철수를 돌아보자
철수는 입꼬리를 울리며 비웃는 표정.

순이 (철수에게 정색)웃어?!!

그 순간 동석의 목소리.

동석 아저씨 온다. 숨어!

아이들 후다닥 농장 옆 창고 뒤로 숨는다.

보면 저쪽에서 정씨가 자전거를 타고 오고 있다.
순이와 철수도 덩달아 숨는다. 벽 뒤에 숨은 다섯.

순이 (철수에게 속삭인다)웃어? 웃겨? 야 그럼 너가 해봐!
철수
순이 해보라니까.
철수 매에에에에에엥~
명수 형. 뭐야! 조용히 해.

그때 옆으로 스윽 나타나는 정씨

정씨 니들 뭐하냐?

굳어버린 아이들.

정씨 이 놈들 또 공책 줬지?!

정씨가 다가가자 아이들 갑자기 소리치며 도망친다.

아이들 와!~~~
정씨 (아이들을 보며)이놈들아! 공부하라고 있는 공책을... (혼잣말)근데 저 집 팔래미는 아프
다고 하지 않았나? 잘 뛰어 땡기네...

31. 들판 _ 낮/저녁

아름다운 들판, 저 멀리 보이는 산과 구름.
돼지 오줌보를 차며 축구를 하는 순이, 철수, 명수, 동석, 동미.
다들 어설피지만 승부욕에 불타는 진지한 모습들.
- 동미가 넘어져 울면 철수가 일으켜 주고
- 명수와 동석은 골이다 아니다 실랑이를 벌이고
- 순이가 갑자기 가슴을 누르며 얼굴을 찡그리면 철수가 다가간다. 그러다 공 뺏긴다.
- 동미가 공을 차려 하자 명수, 동석 잠시 기다려 준다. 동미의 골 환호!
- 순이는 야비하게 철수에게 '기다려!'라 명령해 철수가 멈추면 공을 뺏는다.

- 동석이네 집, 할머니가 아궁이에서 솥뚜껑을 연다. 하얀 쌀밥이 김을 뿜어낸다.
- 순이네 집, 엄마가 끓고 있는 된장찌개 간을 본다.
- 할머니가 문 밖으로 나와 크게 숨을 들이쉬고

- 엄마도 마당에서 숨을 크게 들이쉬고 소리친다.

엄마 밥 먹어!!!!
할머니 밥 먹어!!!!

- 노을 지는 얇은 언덕 위 들판, 응기종기 공을 차는 아이들의 실루엣.
할머니와 엄마의 외침에 좌우로 흩어진다.
(철수는 실수로 동미를 들고 가려다 놔주고, 콩 화분을 들고 간다)

32. 별장[거실] _ 저녁

세 식구의 저녁 밥상,
철수는 이제 수저와 젓가락으로 식사를 한다.

명수 엄마 나 야구공도 하나만 사줘. 저번에 철수 형이 잃어 버렸어. (흥분해서)그때 막 형이 던졌는데 저기 염소 있는데 까지 날라갔어!
엄마 철수가 운동을 잘하는구나~ 운동선수 해야 되나?
명수 ... 근데 엄마 철수 형 언제까지 우리 집에 있어?

흠칫 명수를 바라보는 순이.

엄마 군청에서 잘 알아보고 있으니깐 금방 좋은 데 갈 수 있을 거야.
명수 우리 반에 창규라고 있는데 개가 고아원 사는데... 개 도시락도 안 싸와. 그리고 맨날 똑같은 옷만 입어.
엄마 (한숨) ...좋은 데는 아니지 사실... 근데 우리 철수도 맞는 옷을 하나 사야 될 텐데.

가족들의 대화가 오가는 가운데, 순이가 철수를 바라본다.
젓가락질 하느라 진땀 빼고 있는 철수.
편치 않은 순이의 표정.

33. 별장[철수 방] _ 밤

어두운 밤, 이부자리에 누워있는 철수.
갑자기 철수가 벌떡 몸을 일으키고 주위를 살핀다.

34. 마을 길 _ 밤

승용차 운전석에 지태, 조수석에 경숙, 둘 다 만취한 듯.

지태 (술병 깨 들이키며)아 그 자식... 생각할수록 열 오르네.

경숙 왜? 그 말 안하는 애? 근데 개는 원래부터 바보...

지태 (말 끊고)난 말이야 나한테 덤비는 놈은 끝까지 밟아줘야 잠이 오는 사람이야! 알아?!!!!

경숙 으.. 응... 오빠 근데 오빠네 별장 가서 우리 한잔 더 하는 맞지?

경숙을 보며 씨익 웃는 지태, 뒤라 중얼 거리다 앞을 보는 순간.

급하게 핸들을 돌린다.

염소농장 울타리를 광!! 들이 받는 지태의 승용차.

- 염소들 사이에 있던 철수,

바닥에 야구공을 집어 올리고, 울타리를 박살낸 승용차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 서서히 고개를 드는 지태와 경숙.

경숙 오빠...

지태 씨... (두리번)야! 누구 있나 봐봐!!

얼른 차를 뒤로 빼는 지태.

범퍼 앞에 염소 한 마리가 쓰러져 있고 울타리 밖으로 염소들이 도망치고 있다.

지태 야! 너 왜 쓸데없이 말을 걸어!! 너 때문에...(밖에 뭔가를 보고) 어?

보면 밖에 우두커니 서 있는 철수.

지태 하여간 저 빌어먹을 자식....

경숙 어떡해!~

지태 괜찮아... 저 놈 말 못해.

가던 길로 달아나는 지태의 승용차. 멀리 사라진다.

철수가 얼른 달아나는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잡아들어 올리는 그 때

집안에서 정씨가 헐레벌떡 나온다.

염소를 들고 있는 철수를 발견하는 정씨, 돌아보니 울타리도 부서져 있다.

철수는 쭈뼛쭈뼛 새끼 염소를 정씨 앞에 내려놓는다.

슬그머니 그곳을 떠나는 철수, 연신 뒤를 돌아본다.

정씨의 낯 나간 얼굴.

- 밤 별장, 마당 한켠에 모셔둔 콩 화분. 밤 귀뚜라미 소리.
그리고 콩 화분에 다시 햇살이 밝아 오고 아침 새소리. 누군가 뿌리는 물이 콩 화분에 내린다.

35. 별장 [엄마 방/마당/거실] _ 아침

엄마 방 문을 삐꼼히 열어보는 순이.
아무도 없다.
작은 화장대에 보이는 립스틱과 분.

- 마당, 철수가 콩 싹에 물을 주고 있다.
순이가 창문을 열고,

순이 철수. 너는 해 뜨면 일어나는 구나. ...이리와 봐. (검지손가락 까딱까딱)

- 거실, 상위에 철수와 순이가 공책을 펴고 앉아 있다.
네모 칸 글자 연습 공책. 서툴게 연필(경찰연필)을 쥔 철수의 손.
철수는 글자를 써보지만 거의 그리는 수준.

순이 철수, 나 봐봐. 이거는 '디글'. 한번 따라해 봐. 디글!
철수
순이 해봐! 디- 글-!
철수 ...이...으...
순이 잘하네! 다시 한번 디! 글! 디, 디, 햇바닥 이렇게 디-
철수 ...이...

철수가 갑자기 순이의 얼굴을 빤히 쳐다본다.
보면 새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볼에 핑크색 분을 바른 순이.
처음과는 다르게 혈색이 많이 좋아진 모습.

순이 (어색)... 뭐... 뭘봐~ ... 그냥 다음 거나 쓰자. 봐 이거...'리을'

철수는 가우뚱하며 글씨쓰기를 다시 시도한다.
철수가 또 틀리자 연필 쥔 철수의 손을 잡고 강제로 쓰는 법을 보이는 순이.

순이 이게 어려워? 이렇게 그으라고 이 바보야! 작대기를...(멈칫)

순간 화들짝 철수의 손을 놓는 순이.

글쓰기에만 열중한 철수.

순이는 약간 당황한 듯, 알은 헛기침.

순이 ... 잘 하네. 이렇게 한번 하고 두 번 하고 계속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그렇게 배우는 거야. 다음 '미음'. 봐봐. (철수는 다른 곳으로 시선) 어딜 보는 거야~ '미음'.

철수는 거실 한쪽 놓인 순이의 기타를 보고 있다.

순이 공책 봐. (철수 공책을 본다) 써 얼른.

철수는 '미음'의 두 획을 굿다가 멈춘다.

보면 또 기타로 시선을 옮긴 철수.

순이가 주먹으로 철수의 팔뚝을 때린다, 때리고도 자기 손이 더 아픈지 손을 털며

순이 집중 좀 해!

철수 ... (섬섬한 눈빛)

순이 알았어 알았어. 때려서 미안한다 그래. 봐봐. 얼굴 봐봐.

철수가 빠친 듯 시선을 떨구자 순이는 한숨을 내쉰다.

- 기타를 들고 소파에 앉은 순이.

순이 예전엔 잘 쳤는데. 하도 안쳐 가지구... 흠... 흠... 잘 들어! 내가 옛날에 만든 노래야... 웃으면 죽는다.

빛나는 철수의 눈에선 웃음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순이가 연주와 노래를 시작한다.

순이 밤새도록 창 밖에 햇살이 드리워지길 기다려요. 아침이 오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 까요. 내 숨결은 부드럽고 당신의 미소는 향기로워. 고마워요. 내 손 잡아줘서. 고마워요. 내 눈을 바라 봐서. 고마워요 내가 그리던 왕자님. 이렇게 나타나줘서... 잊으면 안 되요. 우리의 약속들. 우리의 비밀을. 당신의 눈빛에 내가 얼마나 가슴 뛰었었는지... 당신의 미소를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철수는 마치 외계인이라도 본 듯, 경이감에 가득한 눈으로 순이를 바라본다.

철수가 천천히 손을 뺐더니 순이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마치 순이가 자신을 쓰다듬었던 것 처럼 대견하다는 듯.

철수를 보며 눈빛이 떨리는 순이.

그 순간 전화벨이 울린다.

순이 정신 차리고 전화로

순이 여보세요?

전화 여보세요. 유옥희씨 댁이죠? 여기 군청 조계장입니다.

순이무슨 일이신데요?

전화 제가 좀 알아봤는데... 고아원은 지금 어렵구요. 장애시설 중에 돌봐줄 만한 데가 있습니다. 한번 데리고 와 보시죠?

순이

전화 여보세요? 유옥희씨?

순이 그런 애 없어요.

전화 예? 저 그때...

전화 끊는 순이.

심호흡 한번 하고 다시 거실 상으로 돌아간다.

철수가 보이지 않는다.

- 철수 방, 서랍장 구석에 숨겨 두었던 카라멜을 꺼내는 철수.

거실, 철수가 다가와 순이 앞에 손을 내민다.

손바닥 위에 '해태 카라멜'.

순이 ...나보고 이걸 먹으라는 거냐?(마지 못해 받으며) 너 이런 거 좀 숨겨 두지 좀 마.

잠시 철수를 바라보는 순이.

순이 넌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니?

철수

순이 그때 우리 처음 이사 온 날 밤에... 헛간 안에 있던 게 너였어?

철수

순이 너는 왜 말을 안 배웠냐?

철수

순이 너가 말하면 내가 노래도 갈켜 주고... 내 이름도 부르고... 니 마음이 어떤지 그런 거도 묻고 싶...

그러다 갑자기 인상을 찌푸리며 철수의 어깨 냄새를 맡아보는 순이.

순이 너 이거 며칠 째 입는 거냐.

36. 별장[엄마 방/거실] _ 낮

엄마 방 서랍에서 옷을 꺼내는 순이. 여기 저기 널린 옷들,
티셔츠 등을 철수에게 대본다.

순이 이것도 작잖아... (궁시렁)아빠 옷도 작은데 이런 게 맞을 리가 없지... 엄마는 옷 사온다고
해놓고.(중얼중얼)...

옆 옷장도 열어 이것저것 뒤지는 순이.
그러다 한복을 발견한다. 여자한복.
가우똥하는 순이. 철수를 돌아본다.

순이 (슬며시 악당 같은 미소를 씨익) 이거 한번 입어봐봐.

- 엄마 방문을 등지고 선 순이.

순이 다 입었어?

방문을 살짝 열고 보니 철수가 여자 한복을 대충 입었다.

순이 ㅋㅋ.... 봐봐. (웃고름을 묶고 매무새를 만져주며) ㅋㅋㅋㅋ.... 너 입은 것 중에 젤 잘
어울린다. 흐흐흐흐...

순이 무슨 생각이 났는지 철수의 턱을 잡고 돌려본다.

- 손거울을 들고 등진 순이, 순이가 짹! 하며 철수를 돌아보자.

순이 얼굴이 낙서로 만신창이다.

에보니 펜슬로 끝이 돌돌말린 이상한 수염, 산적 눈썹, 영구처럼 앞니도 칠하고 콧구멍도 칠해놨다.

장난꾸러기처럼 씨익 웃는 순이. 덩달아 웃는 철수의 웃음소리.

보면 철수도 립스틱, 핑크빛 볼터치, 코옆에 점, 고무줄로 묶은 머리. 엉망진창.

니라히 거울을 보며 자지러지게 웃는 순이.

철수 흐흐흐흐.....

순이 어때? ㅋㅋㅋㅋ... 너 근데 의외로 화장 좀 받는다?! 깔깔깔~ 너는 여자고 내가 남자다. 알
았냐 철수아? ㅋㅋ... 야 남자는 뭔지 알어? 남자는 구렛나투야. 남진 오빠 봐봐... ㅋㅋㅋㅋ
ㅋ... 아오 웃겨!!! 깔깔깔~

거울을 보며 자기 얼굴에 구렛나룻까지 칠하는 순이. 콧구멍도 더 칠하며 강조하고 있을 때.

그 순간 현관 문 여는 소리가 들린다.

엄마 순이야~ 이것 좀 받아~ ... 아이고 애 어디갔어...

돌처럼 굳은 눈빛으로 핵 돌아보는 순이.

순이는 후다닥 일어서 우왕좌왕, 철수는 엄마를 반기려 문을 열려는데 순이가 말린다.

순이 열린 기동식 옷걸이 뒤에 숨는다. (옷들이 걸린 기동식 옷걸이와 장롱사이 구석)

순이 (조용히)야! 빨리와!! 숨어!!!

순이가 철수를 옷걸이 뒤로 끌고 들어오는 순간.

동시에 엄마가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온다.

순이 눈 질끈 감는다.

엄마 (순이, 철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아유 힘들다.... (머리 두건을 풀어 놓고) 일단 화장실부터...

엄마가 방 밖으로 나간다.

화장실 문 열고 닫는 소리, 순이의 안도의 한숨.

순이 (나오며)철수야, 너 니방에 열린 가서 문 잠그고 있어. 알았지? 내가 부를 때까지 나오지...

순이가 방문 고리를 잠는 순간.

명수 학교 다녀 왔습니다!!!!

명수의 우당탕탕 발걸음, 다시 헐레벌떡 숨는 순이와 철수.

동시에 엄마 방문이 벌컥 또 열린다.

명수 엄마!!! 없네...

엄마 왜? 엄마 화장실이야.

명수 (방 밖으로 나가며)엄마 나 동석이랑 놀다 오게!!

엄마 좀만 놀다와!!!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또 들리더니

명수 어? 너 언제 왔냐?

동석 너 뒤에서 계속 불렀잖아!! 나 울 좀 줘!!

동미 나도!!!

짜증의 탄식을 뱉으며 다시 옷걸이 뒤로 숨는 순이와 철수.

아슬아슬하게 또 벌컥 열리는 방문, 엄마가 들어오며

엄마 (방문 활짝 열어둔 채로)동석이 왔구나. 수박 먹을래?
 동석 네...

그 순간 또 누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다. 동석 할머니.

할머니 (상추바구니를 들고 오며)이걸 들고 가야지 왜 그냥 가~~
 엄마 그냥 도와 드린건데... 이걸 가져 오셨어요~~ 얼른 들어오세요. 수박 좀 드셔.

이를 악물며 진땀 흘리는 순이.

- 활짝 열린 엄마 방문, 거실에서 수박을 먹고 있는 엄마, 명수, 동석, 동미, 할머니.
 아직도 옷걸이 뒤에 숨어 있는 순이와 철수.
 수박을 보며 입맛을 다시는 철수.

순이 (철수에게 속삭인다)가만있어...
 엄마 순이 애는 어디갔니?
 명수 철수 형이랑 놀러 나갔겠지.
 엄마 생전 밖에 안 나가던 애가 여기 와서 잘 다니네.

그 순간 동미와 눈이 마주치는 순이.
 순이가 동미에게 손짓발짓하며 조용히 하라는 눈치를 준다.
 동미 수박 두 조각을 들고 일어서 엄마 방으로 성큼성큼 다가온다.
 모두 동미에게 시선.
 순이는 필사적으로 동미에게 돌아가라 표현해보지만
 결국 동미는 옷걸이 뒤에 숨은 순이와 철수에게 수박을 건넨다.
 철수가 얼른 수박을 받아 허겁지겁 먹다 옷걸이를 쓰러뜨린다.
 여자 한복에 분을 바르고 눈썹 칠하고 머리 묶은 철수.
 콧수염, 콧구멍, 구렛나릇을 새카맣게 칠한 순이.
 엄마, 명수, 동석, 할머니. 모두 멍하니 순이와 철수를 바라본다.
 순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스윽 나와 이층으로 올라가며

순이 나 몸이 안 좋아... 좀 설게...

철수도 나와 순이와 수박을 번갈아 보고 있다.

순이 넌 가서 수박이나 먹어.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철수는 얼른 다가와 수박을 집어든다.
 요상한 차림의 철수를 멀뚱히 바라보는 가족들.

할머니(동석 동미에게) 흠(헛기침)... 니들은 저러면 못쓴다...

어색하게 다시 수박을 먹기 시작하는 사람들.

37. 별장[거실/이층] _ 밤

철수가 화장실 앞에 앉아 뚫어져라 문을 바라본다.

엄마 (거실을 정리하며) 정씨 아저씨 이제 어쩐다니, 업소들 다 도망가고.

명수 (방안에서 공을 가져 나오며) 어? 엄마 이거 어디서 났어?

엄마 거봐! 좀 제대로 찾아보지. 안 보이면 맨날 사달라고나 하고...

철수는 졸린 눈으로 오직 화장실 문만 바라보고 있다.

잠시 후, 순이가 수건을 목에 걸치고 나온다.

갑자기 얼굴에 생기가 돌며 벌떡 일어서는 철수.

순이는 도도한 시선을 철수에게 슬쩍 날리고 이층으로 올라간다.

따라 올라가는 철수.

순이가 방문을 열고 돌아보며

순이 기다려.

순이 방 문 앞에 슬며시 주저 앉는 철수.

문 닫는 순이.

단힌 방문을 잠시 바라보다가, 그 자리에서 웅크려 모로 눕는 철수.

- 방 안, 이부자리에 누운 순이.

방 문을 바라보다가 일어나 요를 문 가까이로 끌고 온다.

문을 향해 웅크려 모로 눕는다.

문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누운 순이와 철수.

38. 별장[마당/거실/마당] _ 밤

어두운 밤, 검은 승용차가 별장 앞에 선다. 찌그러진 범퍼.

조수석에서 내리는 지태. 슬에 취해 비를 거리며 현관으로 다가간다.

잠겨있는 현관문.

지태는 피식 웃더니 주머니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낸다.

들릴 듯 말듯 노래 부르며 열쇠를 찾아 쫓는다. 열리는 현관문.

- 이층계단을 오르는 지태.
순이 방으로 다가가다 발에 뭘가 걸린 듯,
내려다보니 철수가 웅크려 자고 있다.

지태 뭐야 이거?... ...어~ 너 이 자식. 넌 좀 이따가 보자.

지태가 순이 방 문고리를 돌린다. 역시 잠겨 있다.
다시 열쇠꾸러미 중 하나를 골라 넣고 돌리는 순간
순이가 방문을 열고 나온다.
씨익 웃는 지태.

- 마당에 선 지태와 순이.
순이 뒤, 구석진 어두운 곳에 서 있는 철수. 그 어둠속에서 유심히 순이쪽을 바라본다.
차안에 불량해 보이는 청년들을 발견하는 순이.

순이 뭐하는 거야? 이 밤중에?!!!
지태 야 나한테 말 높이라 그랬지? 응? 하~ 이 기집애가 은혜를 몰라도 너무 모르네? 얼른
옷 입고 나와. 맛 있는 거 사줄게.

순이가 무시하고 돌아서려는데 지태가 순이의 허리를 잡아 끈다.

지태 와봐 좀~ 내가 오늘...너한테 남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줘야 겠다... ㅋㅋㅋㅋ...

순간 철수에게서 그르릉... 숨이 새어 나온다.

순이 (지태를 밀치며)철수 가만있어.
지태 (철수에게)어~ 너 거기 있었구나. 너 이리와.

차안에서 거구의 건달들이 내려 지태 앞으로 선다.

지태 너 때문에... 씨... 그때 응? 손목에 멍들어 가지고...

계속 지태를 밀어내려는 순이, 지태가 놔 주지 않자 지태의 팔을 문다.

지태 악! ... 아우 씨!!!

지태가 순이를 밀치고, 순이는 바닥에 쓰러진다.

그 순간 어둠속 철수의 눈동자, 늑대의 그것처럼 회색으로 빛난다. 거친 숨소리가 새어 나온다.
 지태를 향해 다가가는 철수, 달빛에 밝혀진 철수의 모습은 철수가 아니다.
 얼굴만 간신히 사람의 이목구비를 가졌을 뿐, 온몸이 검은 과일.
 철수를 보고 얼이 빠지는 순이와 지태, 건달들.
 철수는 크게 숨을 들이 쉬더니 크고 길게 울부짖는다.
 옆에 있던 건달이 삼을 집어 들어 철수를 내리친다.
 한 손으로 삼을 잡고 손아귀 힘만으로 부러뜨리는 철수.
 바닥에 꽂히는 삽자루, 번개처럼 건달의 목덜미를 잡고 투포환처럼 던져 버리자 건달은 저 멀리 날아
 간다. 다른 건달이 알루미늄 방망이로 철수의 옆구리를 후려치자 철수가 팔꿈치로 잡고 돌아선다. 야
 구 방망이가 U자로 휘어지고 순간 건달의 팔을 잡아끌고 목을 감아 힘을 주자 '우두둑' 소리와 함께
 건달은 푹 쓰러진다. 순식간에 일어나는 철수의 폭력.
 지태를 향해 다가가는 철수.
 마지막 건달이 칼을 꺼내든다. 철수를 찌르려하자
 손아귀로 칼날을 잡고 부러뜨린다. 건달의 팔을 잡고 끌고 와 팔꿈치로 턱을 날린다. 엇가락처럼 축
 늘어지는 건달, 철수가 바닥에 내 팽개친다.
 너무나 빠르고 쉽게 건달들을 해치우는 철수.
 공포에 휩싸이는 지태.
 지태에게 가까워 오는 철수, 지태를 향해 손을 뻗는 순간.

순이 기다려!

그 순간 철수는 마치 플러그를 뽑은 듯, 조용히 손을 내린다.
 숨이 빠져나가는 듯, 가는 신음을 뱉으며 빛나던 눈이 꺼진다.
 검은 털이 사라지고 철수의 모습으로 돌아온다.
 순이를 바라보는 철수의 선한 눈빛.
 방금 일어난 광경을 믿을 수 없는 순이.

39. 별장[거실] _ 밤

순이네 마당 앞에 엠블런스와 경찰차.
 동석 할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다. '이게 무슨 난리야?'
 거실에서 소리치고 있는 지태.
 망연자실 소파에 앉아 있던 순이.

지태 귀신이라니까!!! (순이에게)너도 봤잖아.
 순이물라.

지태의 어이없는 웃음.

경찰 (지태에게)흠... 저... 좀 제대로 말씀을 하셔야지 알지.
지태 말했잖아. 저 놈이 갑자기 꿈으로 변했다니까요. 우린 진짜 가만히 있었는데 저게 나타나서 다 죽여 버린 거 아냐!!
경찰 안 죽었어요. 전부 경상입니다.
지태 (경찰에게) 이 자식이 지금... 너 누구 편이야?!
정씨 이 새파랗게 어린 놈이, 마! 너 위 아래도 없냐? 어디 삼촌뻔 되는 경찰 선생님한테...
지태 (정씨와 할머니를 돌아보며)이 양반들은 또 뭐야~
할머니 아니 이...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 누구더러...
경찰 (할머니를 말리며)같이 오신 분들은 친구분들입니까?
지태 ... 무슨 상관이야?
경찰 건달 패거리들 아니오?
지태 ... 무슨 상관(아차)... 무슨 소리아.
경찰 아무튼 이 댁 따님은 당신이 무단 침입해서 먼저 폭행하려 했다고 하니까... 말이 안 맞으니 일단 같이 갑시다.
지태 어딜 가... 무단 침입이라니 여기 내 집이야!! 지금 누가 때리고 누가 맞았는데 왜 이래!! (순이에게)너 이집 누가 해줬는지 몰라? 응?! 너 병원비...
순이 우리 아버지가...

순간 정적, 모두 순이에게 시선.

순이 사업 일으키고 뒤 늦게 너희 집안 합류해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회사 재산 빼들려 호위호식하면서... 나도 대충 알건 다 알아. 자꾸 이 별장, 병원비 문운해봐야 너한테 득 될 거 없으니까 입 좀 닥치고 있어.
엄마 애! 너 무슨 소리!! 그만 해.
지태 ...이게 지금 들었나. ...두말 할 거 없고 저 놈 당장 이 집에서 안 내보낼거면 너네 식구 들도 다 나가!
순이 그래 그러자! 내말이 그 말이야. (경찰에게) 아저씨 다 같이 경찰서 갑시다. 깡패들이 가져온 몽둥이랑 칼 다 보셨죠? 가서 한번 제대로 따져 봐요! (지태에게) 이왕 다 까발리는 김에 너네 아빠도 좀 불러와라! 응? 그동안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잘 됐네.
지태
순이 그렇게 못할 거면 우리 가족, 철수... 놔두고 조용히 나가던가.

순이 일어서 이층으로 올라간다. 철수도 은근슬쩍 순이 뒤를 따른다.
방으로 들어가는 순이, 따라오는 철수를 보며 착잡한 심경.
순이는 철수 앞에서 방문을 닫는다.

지태 (떨리는 목소리) 이것들이 보자보자 하니까... 저 기집애가 여기 요양하고 있는 게 누구

덕이야!! 내가 죽을 뻔 했잖아!!!

이성을 잃은 듯한 지태, 옆에 있던 순이의 통기타를 집어 들고 서랍장에 후려친다.
쾅!! 산산 조각 나는 기타.

지태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 이층의 철수, 기타 부서지는 소리에 슬쩍 돌아본다.
그 때 순이가 뺨뾰미 문을 열고 철수를 내려다본다.

순이 ...(나지막이) 너 야까 그게 뭐였어?

대답을 기다리다 다시 문을 닫는 순이.
달힌 방문을 바라보는 철수.

40. 별장[첫간] _ 낮

첫간 청소를 하고 있는 순이, 엄마, 명수. 양동으로 물 뿌리고 빗자루로 문지르고.
엄마와 명수는 수건으로 코를 가렸지만 순이만 맨 얼굴.

엄마 순이야... 냄새 안나?

순이 (열심히 빗자루질 하며 투명스럽게)냄새는 무슨 냄새가 난다 그래...

순이가 누군가를 보고 얼굴을 돌린다.

보면 첫간으로 건들거리며 들어오는 지태. 순이와 눈이 마주친다.

분노와 경멸의 눈빛을 흘리고 지나는 지태.

첫간 안쪽으로 두벅두벅 걸어 들어간다.

철문 앞에 서서,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자물쇠를 풀고

끼이익- 열리는 문. 엄마가 다가온다.

철문 방 안, 대충 만든 간이 침대와 작은 책상 등으로 새로 꾸몄지만 감옥 같은 분위기.

침대위에 철수가 꾸그려 앉아 있다.

지태 (손수건으로 코를 막고 공책, 콩 화분등을 보며) 이런 건 뭐하러 갔다 봤어요?

엄마 다 철수 거라...

지태 ... 혹시 우리 아버지한테 전화 안 했죠?

엄마 응... 당연하지.

지태 내가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이 정도로 참아 드리는 거예요. 이 자식 이 방에서 못

나가게 해요. 위험한 놈이니까... 네?

엄마 ... 그래.

지태 어머니 왜 우리 이렇게 싸워야 되요. 순이 어차피 저한테 시집 올 건데 좀 잘 좀 지냅시다
네? (엄마의 불쾌한 표정) 어디서 이런 괴물을 데려와서 이 난리예요~ 어머님도 그거
보셨어야 되는데... 하 참~

협오의 눈빛으로 철수를 내려다보는 지태.

- 바닥을 닦고 있는 순이. 지태가 다가와

지태 넌 어제 그게 뭐라고 생각하냐?

순이 ... 철수 건드리지 마.

지태 니가 자꾸 저 놈을 싸고도니까 내가 더 이려는 거잖아.

순이의 컷불을 만지려는 지태, 탁 쳐내는 순이.

지태의 불쾌한 얼굴, 자리를 뜬다.

- 지태가 대문을 나서다 바닥에 원기를 보고 순이 엄마를 손짓으로 부른다.

지태 이거 뭐예요?

엄마 응, 집안 정리하다가 전 주인 물건들인 거 같아서... 버릴려구.

순이 (마당에서 돌리는 목소리)엄마 문 닫아!

엄마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대문을 닫는다.

지태는 바닥에 서류 꾸러미를 살핀다.

이러 저러 들춰 보다 편지로 보이는 종이를 발견한다.

지태 강종두 교수...?

- 노을 지는 저녁, 방 창문 아래 헛간을 내려다보는 순이.

걱정스러운 표정.

41. 별장 [마당] _ 낮

마당, 평상에 책을 펼치고 앉은 순이.

헛간 안 철문 방, 작은 쇠창살로 사이로 철수의 얼굴이 보인다.

순이를 향한 철수의 시선.

순이 앉아.

철수가 사라진다.

2초 후 다시 쇠창살로 얼굴을 내미는 철수.

엄마가 헛간에서 나온다.

순이 계속 앉아 있으라고. 다리 아프잖아.

엄마 (열쇠를 화분 밑에 숨기며)철수 맘 심란하게 만들지 말고 들어가서 해.

순이 (화분 밑에 숨긴 열쇠를 보며)... 방에 있으면 답답해서 그래.

엄마 근데 순이 요새 무슨 바람이 불어서 공부를 갑자기 열심히 해? (한숨) 그래도 엄마가 그거 하나 사는 낙 됐어.

순이 공부해야 대학교를 가지. ...(잠시) 나 선생님 될 거야. ... 엄마 오늘 어디 안가?

엄마 응 엄마 오늘 우체국에 원고 부치고...

잠시 순이를 바라보던 엄마, 순이에게 다가오며

엄마 원고 부치고 장 보러 갈 거야. ... 순이야.

순이

엄마 철수한테 너무 정 주지 마.

순이 얼굴을 한번 쓰다듬고 지나쳐 나가는 엄마.

무슨 잘못이라도 한 듯, 복잡한 순이의 표정.

42. 교수의 방

복도를 걷는 지태, 뒤 따르는 부하(수행원).

문패를 확인하고 문을 열어 쫓힌다.

안에는 온갖 서적들과 서류들이 가득한 방, 책상에 앉은 노신사(강박사).

강박사 누구요? 노크도 없이...

지태 강태식 교수님이시죠?

강박사 ... 그런데요?

지태 혹시 김종두 박사라고 아시나요?

순간 표정이 굳는 강박사.

지태 제가 신기한 거를 좀 봐 가지구요. 혹시 뭐 좀 아실 까 해서...

43. 철문 방 _ 낮

침대에 앉아 닫힌 철문을 뚫어져라 바라보는 철수.

조용한 철문.

뚜벅뚜벅 들리는 발자국 소리.

철문 보는 철수.

자물쇠 여는 소리, 철커덕, 끼익 문이 열린다.

철수 눈 앞에 보이는 순이.

사방이 시멘트로 된 그 좁은 방을 좋아서 이리저리 총총거리는 철수.

짙짙 차가운 표정으로 침대에 걸터앉는 순이.

순이 밖에 있으면 얼굴 까매질 까봐 온 거다. ... 나 공부할 거야. 너도 책상에 앉아! 너 내가 내준 숙제 다 했어?

철수 갑자기 흠칫, 천천히 책상에 앉는다.

공책을 펴고 연필을 쥐는 철수.

침대에 엎드려 책을 펴는 순이.

뭔가 열심히 하는 척하는 철수. 힐끔 거리며 순이 얼굴을 그리고 있다. (형편없는 그림 솜씨)

뭔가 열심히 하는 척하는 순이. 하지만 순이는 책 빈 곳에 낙서를 하고 있다.

어제 봤던 그 괴물 형상.

슬쩍 철수를 보다 눈이 마주치자 후다닥 책을 덮는 순이.

순이 공부하라니까!

철수가 공책을 (한 장 넘기고) 순이에게 보여준다.

공책에는 엉성하게 그린 기타 그림.

그림을 본 순이, 무거워지는 표정.

순이 안돼... 이제 그거 없어.

철수는 실망한 듯 서서히 다시 책상에 앉는다.

정성들여 글을 쓰기 시작한다.

'바, 사, 아...'

순이 안되겠다. 답답하다.

돌아보면 순이 벌떡 일어서 철문을 열고 나간다.

철수의 얼굴에 섭섭함이 드리워지려는 순간.

순이 다시 얼굴 뺨뺨이 내밀고 철수에게 검지 까딱까딱.

44. 들 판 _ 낮

눈부신 햇살, 넓은 벌판.

산들 바람이 순이의 머리를 훑날린다.

멀리 시선을 던지는 순이.

철수가 순이를 향해 손을 말아 눈에 땀다.

순이 명수?(명수는 안경을 낀다)... 명수는 학교 갔지. 공부하러... 명수 개는 공부하는 꼴을 못 봤는데 맨날 1등이야.

철수 ...(시무룩)

순이 (혼잣말)근데 나는... 공부도 못하고 잘하는 것도 없고...

철수가 뒷 머리를 잡아 묶는 시늉, 그리고 머리를 밀어 올려 딱딱 머리 시늉.

순이 동석이 동미? 너 나랑 들이 놀기 싫어?

철수

순이 덤냐?

철수

순이 춤냐?

철수

순이 ... 나랑 단들이 나왔는데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괜한 미소를 짓는 철수.

순이도 보일 듯 말 듯 한 미소.

순이 야 저기 저 나무 보여? (멀리 가리키며) 저기까지 먼저 가는 사람 소원 들어주기. 응? '소원' 무슨 말인지 알지? 무조건 해달라는 거 해주는 거야. 근데 나는 여자니까 조건이 있어.

철수 ... ?

순이 니 소원은 내가 정한다. 내 소원은 당연히 내 맘대로고... 공평하지?

철수 고개 고덕고덕.

순이가 갑자기 뒤자 잠시 후 철수가 따라 된다.

웃기 시작하는 순이.

철수가 따라 오다가 넘어진다.

웃음이 터지는 순이, 그러다 순이도 넘어진다.

철수가 순이에게 달려온다.

일으켜주길 기다리며 손을 내미는 순이,

하지만 철수는 그냥 지나친다. 비웃듯 돌아보는 철수.

순이 화난 표정으로 철수를 뒤 쫓기 시작한다.

뛰던 순이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멀리서 순이를 기다리는 철수.
 다시 웃으며 달리는 순이, 철수도 다시 뛰고
 앞을 보며 달리던 철수, 뭔가 이상한지 돌아본다. 멈춘다.
 들판 위에 쓰러져 있는 순이.
 철수가 돌아와 바닥에 쓰러진 순이를 내려다본다.

45. 마을 길 / 별장 / 동석이 집 / 정씨 집 _ 낮 / 저녁

순이를 업고 마을 길을 달리는 철수.
 철수가 연신 돌아보지만 순이는 눈 뜨지 못하고 있다.

- 현관을 박차고 들어가는 철수.
- 엄마 방문을 열어 본다. 아무도 없다.
- 명수 방문을 열어본다. 아무도 없다.
 완전히 울상이 되어버린 철수.
- 하늘이 붉게 물들어 간다.
 마을 길을 달리는 철수.
- 동석이네 집에 도착, 집안으로 들어가는 철수.
 곧 다시 나온다. 마당에 동미가 보인다.
 동미를 잠시 보는 철수, 순이를 업은 채 동미를 안아주고 얼른 뛰어 나간다.
- 저 앞에 정씨네 염소농장이 보인다.
 정씨네 집 도착,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뛰기 시작한다.
- 자전거를 타고 가는 정씨, 뒤에는 동석이 할머니가 타고 있다.
 저 멀리 뛰고 있는 철수를 바라보는 정씨와 동석 할머니.
- 들판을 달리는 철수,
 멈추고 사방을 둘러본다.
 해는 지고 어둠이 내리고 있다. 들판과 산과 나무뿐,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다시 무작정 뛰는 철수.

46. 별장 [들판 / 숲] _ 밤

- 어둡고 음산한 산등성이.

어두운 밤, 햇불과 랜턴을 들고 흩어져 있는 사람들.
 사망에서 '순이야!', '철수야'를 외치고 있다.
 울상이 되어 순이를 외치는 엄마. 옆에 명수.

지태 (다가오며)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그 놈이 문 뚫고 나간거지?
 엄마 (울먹)아이고... 우리 순이.... 어떡... 순이...
 명수 누나 어디서 형이랑 놀고 있을 거야. 울지 좀 마.

- 순이를 외치는 정씨와 할머니.
 옆으로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이 커다란 총을 들고 지나다.

정씨 이 사람들은... 누구야?

그 순간 저쪽에서 누군가 외친다.

"찾았다!!"

사람들이 우르르 물러간다.
 랜턴의 빛이 한곳으로 모인다.
 그곳에 웅크려 앉은 철수의 뒷모습.
 그리고 그 옆으로 빠져나와 보이는 순이의 발.

엄마 (달려가며) 순이야!!!

엄마를 말리는 양복들. 그 중 하나가 긴 총으로 철수를 겨눈다.
 총신을 잡아 내리는 명수.

명수 아저씨! 뭐해요?!!

뒤에서 강박사가 나타나 명수를 부드럽게 말한다.

강박사 마취총이야 괜찮아.
 명수 무슨 총이건 이걸 왜 싸요!! 우리 형한테!!!

명수가 강박사를 뿌리치고 철수에게 성큼성큼 다가간다.
 명수를 보는 철수의 표정이 조금 풀린다.

명수 형 빨리 집에 가자. 여기서 뭐...

순간 명수를 앞지른 양복들이 철수를 덮친다. 팔을 잡고 등을 밟는다.

철수의 목에 커다란 목쇄를 철컹 채우는 양복들.

그 모습을 보고 얼이 빠지는 엄마, 명수, 정씨, 할머니, 동석, 동미.

철수를 끌고 가는 양복들.

그 와중에도 쓰러져 있는 순이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는 철수.

47. 철문 방/별장 거실 _ 밤

별장, 주위로 군용 지프와 승용차 두 대.

- 철수의 철문 방, 해머로 커다란 정을 바닥에 박는 검은 양복1.

정에 연결된 쇠사슬, 그 끝에는 철수의 목쇄.

근심스러운 얼굴로 식창살 밖을 내다보고 있는 철수.

- 식탁에 앉은 엄마, 지태, 강박사.

명수 (엄마에게 다가오며)누나 약 먹고 다시 잠들었어.

강박사 놀라셨죠?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와 실례를...

지태 얼른 말씀하세요. 저게 뭔지... 내 말을 안 믿는다니까!

강박사 흠... 저... 밖에 있는 저것은...

명수 저것이 아니라 철수예요.

강박사 그래 저 철수는... (잠시) 전에 여기 전에 살던 사람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엄마 아니요.

강박사 ... 자식이 부모를 닮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고 돼지가 돼지를 낳게 만드는 게 다 그 이유죠. 부모에게 물려받은 걸 닮는 그릇이 몸속에 다 있는 겁니다.

강박사 슬쩍 둘러보며 눈치를 보는 듯.

강박사 그 그릇에 다른 걸 담는 거... 예를 들면 사람 그릇에 짐승 것을 담는... 이 집에서 전에 살던 김종두라는 사람이 그런 걸 연구하던 사람이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엄마 아니요.

지태 그러니까 저 놈이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다! 그 말 아니예요?!

강박사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종두가 보낸 편지에는 이 일을 지시한 분들이...

대령 안 해도 되는 말은 안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요?

보면 군복 차림의 병보(대령)가 다가온다.

대령 (앞으며 엄마에게)경찰도 모르게 숨기고 계셨죠? 저 아이를.
 엄마 아니요. 왜 자꾸 아닌 것만 물어 보세요?! 경찰에 다 얘기...
 대령 뭐 마실 것 좀 없습니까?

명수가 옆에 있던 주전자를 통째로 대령 앞에 놓는다.

대령은 약간 당황하다가 주전자 뚜껑에 보리차를 따라 마실 때.

강박사 김종두가 하던 연구가... 이게 사람을 가지고 하는 일이라 실험의 성공 여부를 떠나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많은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최근에서야 안거죠. 이걸 지시한 분들이...
 대령 (울마사다 사례들려 튀기며)폼..크헉! 정부에서 지시하거나 지원했다는 증거는 없어요!!!
 강박사 '정부'라는 말은 안했는데...
 대령 그자가 은둔하며 여기서 단독으로 실험을 했던 거요. (엄마에게)아무튼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엄마 알려고 한 적 없는데...
 대령 김박사는 숨어서 연구를 했고 결과도 아무에게 알리지 않았습시다. 저런 위험한 것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우리는 몰랐다! 왜 숨겼을까요?
 엄마
 지태
 대령 김박사는 ...아마 북에서 지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어리둥절한 엄마와 명수.

지태 내 그럴 줄 알았지!
 대령 단속 되지 않는 폭력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오로지 국민의 안전...
 강박사 (심기가 불편한 듯 말을 막으며) 저 그건 좀 아닌 거 같고...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철수를 잠시 데려가서 좀 자세히 알아봐야...
 대령 어제 다 끝난 얘기를 왜 또 판소리를 하시나? (가족들을 보며)저 아이는 외부에 알려져선 안됩니다. 밖으로는 못 데리고 나가요.
 강박사 뭘 그렇게 조심하는 거요?
 대령 위에서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하는 거지 왜 자꾸 따져요? 나도 자세히는 잘 몰라 솔직히... 여하튼지간에 여기서 며칠간 두고 보면서, 밖에 저 18살짜리 아이가 진짜 그 못된 실험의 결과로 확인되면, 저희로선... 사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명수 죽인다구요?
 대령 그렇지. 새나가면...(아차) 아니 위험하니까.
 엄마 (도리도리)지금 무슨 말씀들을 하시는 건지 제가 하나도 못 알아 듣겠는데요. 저기...선생님들 뭐 잘못알고 오신 거 같아요. 철수 착한애예요. 말을 못해서 그렇지...
 지태 아줌마! 보고도 몰라? 오늘 순이한테 한 짓을 봤잖아요. 좀만 늦었어도 순이 그 자식한테 잡아 먹혔어!

참다못해 지태를 노려보는 엄마와 명수.

48. 별장[마당] _ 낮

별장 앞, 택시가 대기하고 있다.

엄마의 부축을 받으며 나오는 순이.

헛간 앞에 우뚝 선 검은 양복 1,2. 강박사의 수행원 박 조교.

철문 밖 쇠창살로 철수의 얼굴이 보인다.

눈을 맞추는 철수와 순이.

엄마가 택시 문을 연다.(별장의 마당은 얇은 울타리가 있는 개방형)

명수 누나 잘 갔다 와.

명수가 작은 쟁반에 식사를 들고 헛간으로 향하고 있다.

순이가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명수에게 다가간다.

순이 (쟁반)이거 내가 주고 갈게.

헛간으로 들어가려는데 검은 양복이 막아선다.

순이 당신들은 아침 먹었잖아!

대령 이런 건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순이 비켜요. 이 국 확 끼얹어 버리기 전에...

흠칫 놀라는 대령.

- 양복1이 철 문 자물쇠를 열어준다.

문이 열리고 철수가 보인다.

철수의 목에 걸린 무거운 목쇄, 목에 연결된 온갖 종류의 의학장비들.

신발도 없이 바지만 입고, 씻지 못해 초췌한 모습.

하지만 순이를 본 철수의 표정만은 밝다.

철수의 울골이 마음 아픈 순이.

순이 (쟁반을 내려 놓고) 나 금방 올 거야. 글씨 10바닥만 쓰고 있어. 그럼 올 거야.

철수(표정이 안 좋아진다)

순이 알았지...(떨리는 목소리) 밥 많이 먹고... 밤에 시끄럽게 소리치지 말고...

순이는 돌아서 나간다.

벌떡 일어나 따라 나서려는 철수, 벽에 고정된 목쇄 사슬이 덜컥 끊어질 듯.

검은 양복이 열린 철문을 닫으려 하지만 철수에게 밀린다.

열린 철문 틈으로 철수가 얼굴을 내밀고 큰 눈으로 순이를 바라본다.

문을 열려고 안간힘 쓰는 철수.

양복1 탈출하려 합니다!!!

슬픈 짐승의 숨소리가 새어 나온다. 우~~~~

대령이 어디선가 마취총을 들고 달려오는 순간.

순이 기다려!

문틈 사이로 보이는 철수의 눈빛. 스윙 안으로 들어가는 철수의 얼굴.

쿵! 달히는 철문. 헉헉 거리는 검은 양복1,2.

대령 그렇게 내가 위험하다고 했...

순이 뭐?! 사실?! 철수를... 나 없는 동안 철수 털끝만 건드려 봐요. 당신들...

순이의 광분에 슬쩍 뒷걸음질 치는 대령, 분을 식이며 자리를 뜨는 순이.

- 택시가 출발한다.

뒷좌석에 근심 가득한 순이의 얼굴.

49. 별장 [철문 방] _ 저녁

철문 방, 책상에 앉은 철수의 팔에 주사바늘을 꽂는 박조교.

철수가 돌아보자 박조교 흠칫 겁을 먹지만

다시 조심스럽게 피를 뽑는다.

주위에 널린 온갖 실험 장비들.

철수는 힘없이 다시 책상 위로 시선을 옮기고 글씨를 쓴다.

공책에 단어들. 개나리... 호랑이...

50. 별장 [거실] _ 저녁

- 주방에 명수, 냄비 안에 감자 세알을 넣는다.

- 거실 한 켠에 마련 된 관찰 본부. 모니터들, 도트 프린터등.
마루에서 화투라도 치는 듯 웅기종기 앉은 모습이 우스꽝스럽다.
모니터 속 철수는 책상에 조용히 앉아 글씨 연습을 하고 있다.

대령 (참외를 꺾으며) 저 놈 뭐하고 있는 거야?
명수 (주방을 나오며)글자 공부요. 가나다라...
대령 왜?
강박사 ... (착잡한 한숨)모르면 배워야지. 어찌겠소.
대령

뒤에 서 있던 지태의 표정이 좋지 않다.

박조교 별 다른 움직임은 없습니다. 저러다가 문만 쳐다보고 또 앉아서 쓰고...
강박사 음식엔 손도 안댔구만.
명수 누나가 없어서 그래요.

모두 명수를 잠시 바라본다.

대령 아무튼 조금이라도 비정상적... 폭력적 성향을 보이면 담장 사실입니다.

그 말에 대령을 잠시 바라보는 지태.

강박사 거... 그냥 개인적인 부탁인데... 사실이니 그런 말 좀 웬만하면 안 들렸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저 아이가 뭘 했다고 이렇게 오바들을 하는지 모르겠네.
대령 편지에 써 있다며! 저거 사람 아니라며!
강박사 (심기불편) 아무튼 보고서는 같이 쓰는 거니까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소.

대령이 그 무거운 몸을 둔하게 펴, 옆구리에 찢어진 상처를 보여준다.
살찐 남자의 배를 보고 모두 얼굴을 찌푸린다.

대령 보여? 내가 이거를 맞고도 두 시간 뛰어 다니면서 교전했던 사람이야.

다시 몸을 뒤돌어 반대 허리춤에서 권총을 뽑는다.
과시하듯 권총을 보여주는 대령, 모두 흠칫.

대령 난 잘 때도 실탄을 장전해 놓지... 차 안에는 더 큰 놈이 두 개나 있어. 그것도 물론 속에는
실탄 꽉꽉 채워서.... 내 눈은 못 속여. 딱 보면 알아 위험한 놈인지 아닌 지...

권총을 바라보는 지태, 양복2가 들고 있던 마취 총으로 시선을 옮긴다.

멀리서 은근한 천둥 소리가 함께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51. 별장[거실] _ 밤

- 마루바닥에 야전침대를 설치해 놓고 잠은 대령과 양복2. 소파에서 누운 지태.

- 2층 계단 뒤편 은밀히 이야기 중인 강박사와 박조교.

박조교 혈액형은 판독 불가예요.

강박사 (잠시)...다른 건?

박조교 후각 침각 시각 다 너무 좋은 거 같고... 좀 많이 좋아요. 체온이 좀 높는데...

강박사 얼마인데?

박조교 41도예요. ...근데 열이 아니고 원래 그런 거 같아요. 저 방이 환기도 안 되고 해서 낮에 32도까지 올라가는데 땀 한방울 안 흘리고... 그리고 더 자세히 알아봐야 겠지만 곰팡이와 균력이 거의 코끼리 수준이에요.

강박사 ... 누가 물어보면 다 정상이라고 얘기해.

박조교 네.

강박사 우리가 안 데려가면... 재 여기서 죽는다.

- 강박사가 거실로 다가와 모니터를 잠시 내려다보고는 이층으로 올라간다.

곧 방 문 닫히는 소리.

슬며시 눈뜨는 지태.

조용히 일어나 마취총을 바라본다.

52. 별장[마당] _ 밤

마당, 비가 내린다.

쇠창살로 사이로 켜 철수의 콩화분, 빗방울을 주고 있다.

그 앞으로 다가서는 명수, 명수의 품 사발에 담긴 감자들.

명수 형.

콩 화분이 들어가고 철수가 얼굴을 보인다. 명수를 보며 웃는다.

쇠창살 사이로 손을 내미는 철수.

철수는 감자는 집어 들지 않고 기타 그림을 명수에게 보인다.

명수 그거 없어. 이것 좀 먹으라니까. 누나 며칠 있다 와.

철수 갑자기 시선을 돌리고 그르릉-- 위협적인 소리를 뱉는다.

지태 안 먹겠다는 놈을 왜 괴롭히! 들어가!

명수 ... (노려본다)

지태 쪼꼬만 자식이 뭘 꼬라.

명수 내가 좀만 컸어도 넌 나한테 죽었어. 임마.

검은 우비를 입은 지태, 어이없는 웃음.

명수 현관으로 들어간다.

지태,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쇠창살로 다가간다.

지태에게도 기타 그림을 보이는 철수.

지태 (기타 그림을 보며 멍뚱) ... 지낼 만 하나?

철수가 잠시 지태를 보다가 책상 앞에 앉는다.

지태 너무 열심히 공부하지마. 밤이 늦었다. 잘 시간이야.

갑자기 우비 속에서 커다란 마취총을 꺼내는 지태.

돌아보는 철수, 마취 총을 보면서 가우뚱 할 때 지태가 총을 발사한다.

철수의 어깨에 꽂히는 마취탄.

순간 회색으로 변하는 철수의 눈, 지태에게 달려들어 쇠창살 사이로 손을 뺏는다.

철수의 손이 지태를 잡아 쥘 뻔 하지만, 금세 힘이 빠진듯 늘어지다가 쇠창살 안으로 들어가 사라진다.

- 헛간 앞에 양복1.

지태 (다가오며)잠깐 들어가야 겠어요. 뭘 좀 두고 와서.

양복1 안됩니다.

지태 대령님이 허락하셨어요. 들어가서 직접 여쭙 보시던가.

양복1 망설이다 길을 내준다.

- 철문 앞, 열쇠를 꺼내는 양복1.

지태도 열쇠를 꺼내며

지태 나도 있어요. 내 집이니까...

자물쇠를 풀고 문을 여는 지태.
 안에 쓰러져 잠들어 있는 철수.
 방안을 훑어보던 지태, 황급히 노트와 연필을 들고 나온다.
 콩 화분을 보며 멈칫, 콩 화분까지 들고 나온다.

양복1 이게 당신 거요?

지태 내꺼야.

- 보이지 않는 마당 구석, 공책과 연필 화분을 내팽개쳐 버리는 지태.

지태 그렇게 왜 날 건드려... 예전에 조용히 사라졌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잖아. (헛간을 돌아 보며) 넌 내가 책임지고 확실하게 죽여줄게.

53. 별장[마당/철문 방] - 낮

흙 바닥에 누더기가 된 공책, 부러진 연필, 흙이 쏟아져 나온 콩 화분이 비를 맞고 있다.

- 철문 방, 철수가 침대 위에 꾸그려 앉아 빈 책상을 바라본다. 없어진 물건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동석 명수야~

동미 철수 오빠~

철수가 헐레벌떡 쇠창살 밖을 내다본다.

마당에 우산 쓰고 서 있는 동석, 동미.

명수 (다가 오며) 야 비오잖아.

동석 개구리 잡으러 가자.

명수 나 집에 있어야 돼. ... 철수 형도 지금 못 놀아.

동석, 동미를 보며 가는 신음을 내뱉는 철수.

동미 왜?

명수 ... 그냥 지금 못 놀아. 담에 놀자.

시무룩해 떠나는 동석과 동미를 보는 철수의 표정이 일그러진다.

힘 없이 책상에 앉는 철수. 손등으로 눈물을 닦는다.

54. 병원 _ 낮

진료실에 의사, 순이, 엄마.

의사 일시적인 쇼크였습니다. 걱정할 만한 건 아니고요. ...근데 뭘 하셨는지 상태가 많이 호전
되었네요. 요양지의 효과가 이정도 까지 인줄은 몰랐는데...

엄마 감사합니다 선생님. 난 큰일났는 줄 알고 걱정이 댜 가지고...

순이 엄마.

엄마 ... 응?

순이 빨리 가자.

55. 별장[거실] _ 낮

거실, 꺼져 있는 모니터를 유심히 바라보는 지태.
집 밖에서 양복1의 목소리가 들린다.

양복1 나와요?!!

모니터가 켜지고 침대에 웅크려 누운 철수의 모습이 보인다.

강박사 이제 나오네.
박조교 어제 비가 와서 정전됐던 거 같습니다.
강박사 (지태에게)저거 당신이 그런 거야?
지태 뭐요?
강박사 안에 저 아이 물건들 당신이 다 빼버렸지?
지태 ...어차피 필요도 없는 거...
강박사 한번만 더 쓸데없는 짓 하면 쫓아 내겠습니다. 아무리 당신 집이라도 공무중이니까..
지태 (불편한 표정)... ...

대령은 관심이 식었는지 거실에서 수박을 먹고 있다. 런닝 차림으로 첼퍼덕 앉아 신문을 넘기며

강박사 (대령을 보며)당신 먹은 거 다 사놓고 갈 거요?
대령 내가 먹었으면 또 얼마나 먹었다고...
강박사 ... 흠... 아무튼 이 아이 생각보다 온순한 것 같습니다.
대령 개 그냥 사람 아니야? 내갈 볼 때 그냥 저... 못 배운 애야. 내가 전쟁 때 그런 애 많이 봤어.
지태 (불안)대령님... 척보면 아신다면서요.
명수 그렇다니깐요!! 그리고 철수형 나보다 깨끗해요. 난 양치질 밤에 어쩔 때 안하고 자는데
철수형 점심밥 먹고도 한탄 말이에요. 그리고 양말도 원래대로 뒤집어서 벗어 놓고!!!

지태 대령님 내가 말 안했어요? 저 늬이 어떻게 괴물로 변한 거... 내가 다 얘기 했을 텐데?
저건 우리랑 달라! 다르다구요!! 못 배우고 힘도 세잖아요! 저건 마귀라니까!!

강박사 ... 마귀가 뭔가요?

박조교 우리랑 다르지도 않지만... 다르다고 사람을 해치나?

대령 그리고... 내가 솔직히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라서 여기 오래 죽치고 있기가 좀...

끓어오르는 분노와 짜증을 애써 억누르는 지태.

56. 별장 [철문 방] _ 낮

침대에 모로 누운 철수, 초체한 물골.

점점 눈이 감긴다.

완전히 눈을 감는 순간, 번쩍 눈을 뜬다.

침대에서 일어서 방안을 오간다. 뭔가 불안한 듯, 흥분한 듯.

침대 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책상에 앉았다 일어섰다.

그러다 침대에 조용히 앉는다. 특유의 구부정한 자세.

가만히 앞을 본다.

철수 눈 앞에 보이는 철문.

고요하다.

잠시 후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굳은 듯 철문을 바라보는 철수.

발자국 소리가 점점 커진다.

자물쇠 푸는 소리.

철문을 바라보는 철수.

문이 열린다.

눈 앞에 보이는 순이, 철수를 내려다 본다.

순이를 보지만 일어서지 않는 철수.

미세하게 일어섰다 앉았다. 발이 움찔움찔.

순이 이제 그만 기다려... 이리 와.

서로에게 다가가는 순이와 철수.

바닥에 꿇어 앉아 포옹하는 둘.

착잡한 표정으로 둘을 내려다보는 엄마,(옆에는 양복2)

- 모니터로 둘의 포옹을 바라보던 강박사, 대령, 명수, 박조교, 양복1 그리고 지태.

모두 멜로드라마라도 보는 듯 한 표정들.

하지만 지태만 당황스러운 표정.
강박사가 모니터를 끈다.

강박사 제 결론은... 동물들 사이에서 자라 사회성이 결여됐을 뿐 학습에 대한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고. 여기서 더 이상 이렇게 24시간 관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좀 더 봐야 알겠지만 지금 저 아이를 해치는 건 아무 의미 없는 살인입니다.
박조교 한번도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적이 없어요.
대령 ... 그런가?

지태의 심기가 여간 불편해 보이지 않는다.
강박사와 대령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듯 한 대화가 더 오간다.
지태 마른 침을 삼키며 고통스러운 듯, 뭔가를 생각하는 듯.
그때 지태가 입을 연다.

지태 저 새끼가 염소들을 잡아먹었어요.

대화를 멈추고 모두 지태를 바라본다.

57. 별장[거실] _ 밤

다시 정복을 차려 입은 대령, 강박사, 박조교, 양복1, 순이, 엄마, 명수, 정씨.
모두 심각한 표정들로 앞에 누군가를 바라본다.
소파에 앉은 경숙.

경숙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강박사 (지태를 가리키며) 이분이랑?
경숙 네... 저저번주 인가? 그때... 밤에...

황당한 표정으로 지태를 바라보는 엄마.
순이는 오로지 경숙에게만 시선.

경숙 (연신 지태눈치를 보며) 밤에... 지나가고 있었는데 저놈...이 정씨네 염소를 잡아먹고 있었어요.
강박사 잡아 먹었다구? 어떻게?
경숙 ...에?
지태 어떻게긴.. 입으로 뜯어 먹고 있었지. 늑대새끼처럼.
대령 왜 이제야 그 얘기를 하는 거요?
경숙 너무 무서워서요... 나한테 해코지 할까봐.

대령 당신도 있었다며 왜 말을 안했습니까?
 지태 지금 하잖아요.
 순이 (피식웃으며 지태에게) 너 그거 아냐? 너 거짓말 할 때 엄청 티나는 거? 거짓말 할라면 말이 좀 되게 해줄래? 바보나 속을 그런 말 들으면 더 기분 나쁘니까!!!
 지태 왜 이래? 보고도 못 봤다 시치미 떼는 게 누군데?
 순이 (정씨에게) 아저씨! 알잖아요. 철수가 안 그랬잖아요!
 대령 당신은 봤소? 그 아이가 염소를 해치고 있었던 걸.
 정씨
 순이 아저씨... 어떻게 철수가...
 정씨 잡아먹는 건 못 봤는데...
 대령 못 봤는데. 그런데?
 정씨 그날 밤에... 철수가 염소농장에 있던 건 봤어요.

서로 눈을 맞추는 강박사와 대령.

잠시 생각에 잠기는 강박사.

강박사 확실한 건 아직 모릅니다.
 대령 확실한 건 없어졌지. 방금까지 확실한 거 같았는데... (정씨에게) 죽은 염소가 아직 있습니까?
 정씨 없어요. 근데 짐승이 먹은 거 같지는 않았어요.
 지태 당신이 뭘 알아!!! 내가 봤다니까!!!
 순이 야 너 거짓말 좀 그만해!!
 지태 이 뿔 같은 기집애가 지금...
 엽마 지태!!! 너 말 조심해!! 나 있는 거 안보여?! 넌 위 아래도 없어?!!

헛웃음을 지으며 사람들을 둘러보는 지태.

지태 다들 미쳤구만? 지금 저 짐승새끼하나 못 없애서 이려고들 있는 거야?
 강박사 아무튼 내일 현장에 한번 가보고 부서졌다는 울타리도 보고... 일단 오늘은 다들 돌아가시죠.

일어서는 경숙, 지태와 눈이 마주친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지 식은땀까지 흘리는 지태.

강박사 당신도 돌아가.

58. 지태의 별장 _ 밤

잔뜩 약 오른 얼굴로 의자에 앉은 지태.

벽난로 불쏘시개로 바닥을 쿵! 쿵! 찰고 있다.
그 때 누군가 문을 두드린다.

- 지태가 현관문을 열자, 앞에는 정씨.

지태 왜요.

정씨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지태 그니까 왜요~ 뭐?

정씨 철수라면 뛰어 넘었을 거예요.

지태 ... 뭐?

정씨 철수가 그랬다면 울타리를 뛰어 넘었을 거예요. 때려부실 필요가 없었겠지. (손을 벌리며)
이만큼 울타리 날아갔는데 뭐하러 그랬을라구.

지태

정씨 죽은 염소는 상처 없이 갈비뼈만 부러져서 죽었고... 내일 차 좀 들고 내 농장으로 와 봐요.
뭐 좀 볼게 있으니까. 내가 바퀴자국 안 지워지게 할려고 거적때기 덮어 놔거든. 내일 그
양반들 오면 좀 보여줘야 겠어.

지태 ... 뭐하자는 거야?

정씨 거짓말이면 거짓말이다 한마디만 하면 나도 입 다물고 있을 테니까. 괜한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서울 올라 가시라구.

지태

정씨 그 말 하러 왔어요.

문을 닫는 정씨.

지태의 비열한 눈에 두려움이 스친다. 광기에 떨려오는 표정.

불쏘시개를 손에 꼭 쥐다.

- 지태의 별장 마당을 가르 질러 나가는 정씨.

지태 정씨.

정씨가 돌아보는 순간, 불쏘시개로 정씨를 후려치는 지태.

59. 별장[거실/마당] _ 밤

주방, 식탁에서 이야기 중인 강박사와 대령.

전화벨이 울린다. 양복1이 받는다. 잠시 듣고 있다가 대령을 본다.

대령 누군데?

양복1 저... 기자입니다. 내일 잠깐 와서 묻고 싶은 게 있다고....

대령 뭐?!!!! ...(난감한 한숨)... 뭐해 그냥 끊어. 자식들 냄새는 어떻게...

양복1이 수화기를 내려놓는다.

근심어린 대령의 이야기가 배경처럼 흐르는 가운데 모니터를 내려다보고 있는 순이.

쇠창살 밖을 내다보고 있는 철수.

순이의 슬픈 얼굴.

그러다 갑자기 뭔가를 발견한 듯 모니터 속 철수의 얼굴을 유심히 응시한다.

뭔가 중얼 거리는 듯 한 철수의 입모양.

순이, 뭔가 들리는 듯 시선을 멀리 던지더니 현관으로 향한다.

현관을 열고 마당으로 내려오는 순이, 뒤를 쫓는 카메라.

조용한 마당, 희미한 노랫소리가 들린다.

노랫소리를 따라 가는 순이.

점점 커지는 노랫소리.

순이가 불렀던 노래. 발음은 분명치 않지만 멜로디는 그대로.

헛간 쇠창살 앞에 서니 철수가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다.

순이 그만해.

노래가 멈춘다.

잠시 서로 바라보는 둘.

철수가 쇠창살 사이로 순이에게 손을 뻗는다.

순이가 물러선다.

서운함에 얼음처럼 굳는 철수.

순이 정말... 니가 그랬어?

철수

빗방울이 철수의 팔위로 하나둘 떨어진다.

순이의 얼굴 위로도 떨어진다.

순이 비 온다. ... 들어갈게.

떠나는 순이를 눈으로 쫓는 철수.

60. 정씨의 집/마을길 _ 밤

정씨의 집, 마당 흙바닥에 줄썩 쓰러지는 정씨.
숨을 몰아쉬는 지태.

- 마을길, 지태가 어둠속을 걷고 있다.

지태 감히... 나를... 내가 니들보다... 누군데... 감히... (중얼중얼)

61. 별장[순이 방] _ 밤

순이 방, 창 밖으로 헛간을 내려다보는 순이.
비가 내린다. 천둥이 친다.
순이의 근심스러운 눈빛, 커튼을 치고 돌아선다.

62. 별장[헛간/마당/거실] _ 밤

헛간 앞, 양복2가 서 있다.
누군가의 시선이 양복2의 뒤로 다가간다.
그리고 불쏘시개로 양복2를 내리친다. 쓰러지는 양복2. 그 뒤로 나타나는 지태.
그 순간 번개가 내리치고 광기 어린 지태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보인다.

- 군용 지프를 다가가는 지태.
창 너머 가지런히 세워진 자동소총 2정이 보인다.
문을 열고 소총을 꺼내보려 하지만 시건장치로 잠겨 있다.
희미한 욕을 내뱉는다.
별장을 바라보는 지태. 슬며시 자리를 뜬다.

- 거실, 대령과 이야기 중인 강박사.

강박사 아넌 거 같아요.
대령 그렇지? 무슨 염소를...

그 순간 어두워지는 거실, 모니터도 꺼진다.

강박사 뭐야?
박조교 또 정전인데요.

대령 또야? 야! 나가봐! 아줌마 여기 비만 오면 두꺼비 집 내려가요?

- 별장, 뒤쪽으로 조심스럽게 돌아 나가는 지태.
주위를 살피며 헛간 옆으로 붙어 걷는다.
헛간 안으로 들어가는 지태.
철문을 향해 간다. 자물쇠를 푼다.

- 별장 뒤쪽 두꺼비집 여는 양복1.
누군가 툇기로 내리친 듯 부서져 있는 차단기.

양복1 어? 왜 이래 이거...

- 철문이 열린다.
철수가 책상에 엎드려 있다가 슬쩍 지태를 올려다본다.
불쏘시개를 켜 지태, 겁이 나는 듯 침을 삼키며 둘러본다. 감시카메라에 불이 꺼져 있다.
철수는 다시 책상에 고개를 묻는다.

지태 (불쏘시개를 내려 놓으며)뭐하니?

- 계단 뒤 작은 창 을 통해 거실 사람들과 대화하는 양복1.

양복1 아줌마, 이거 완전 박살났는데? 누가 이걸... 저 휴즈 새거 있어요?

엄마 휴... 휴즈가 뭐야?(어딘가로 달려가며) 여기 그런 거 비슷한 거 있는 거 같은데...

강박사 박조교가 좀 찾아봐!!

- 철문 방, 철수가 지태를 노려본다.

지태 괜찮아. 그냥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온 거야. ... 내가 그동안 미안했다. 너 원래 착한 놈인 거 아는데... 여기서 지내기 힘들지?

철수 서서히 일어서 짐승의 위협적인 숨을 내뿜는다.

지태 (물러서며)너 순이 기타 어딴는지 알아? 기타 말이야. 노래 하는 거...

철수 (표정이 풀어진다)... ..

지태 요새 순이 기분이 별로지? 개 노래하는 거 좋아하는 데 말이야. 기타가 없어졌어. 그래서 병도 심해지고... 노래를 못해서 죽을지도 몰라.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정씨가 훔쳐간 거 였더라구. 정씨 알지? 염소(염소흥내) ... 키우는 아저씨...

철수

- 별장 뒤, 두꺼비 집을 손보느라 애쓰는 양복1.

지태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순이가 나한테만 얘기 했는데... 순이 너 별로 안 좋아해. 싫어해.
알고 있었냐? 니가 솔직히 사람들이 좋아할만한 애는 아니잖아. 응? 그렇지?

철수

지태 기타 찾아줘. 지금 가서 찾아와.

철수

지태 그럼 순이가 조금 좋아해 줄지도 몰라.

- 거실, 등이 켜져 밝아진다.

대령 이제 됐네.

박조교 (뭔가를 보고)어?

강박사도 뭔가를 보고 표정이 굳는다.

모니터에 철수가 보이지 않는다. 철문이 열려있다.

대령 어디 갔어...

그 순간 현관을 박차고 들어오는 지태.

지태 큰일났어요!! 그 자식 지금 난동 부리고 있습니다!!!

지태를 보는 강박사, 대령, 박조교, 엄마.

63. 별장 [마당] _ 밤

헛간 앞, 쓰러진 검은 양복2를 일으키는 양복1.

대령 (쓰러진 양복2를 보다가) 어디로 간 거야.

지태 정씨네 염소 농장으로 갔어요. 보복하려는 거겠지.

강박사 (약간 의심)당신은 어떻게 알아?

지태 ... 오다가 봤어요.

대령 거기가 어디야! 앞장 서요!

떠나려는 대령의 팔을 붙잡는 지태.

지태 총 가져 가져야죠.
대령

- 현관을 나서는 순이, 눈에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

64. 정씨의 집 _ 밤

비 맞으며 성큼성큼 걷는 철수의 커다란 등, 그 너머 정씨네 염소농장이 보인다.
얼이 빠진 듯한 철수의 눈빛, 정씨의 마당을 가로지른다.
옆에 쓰러져 있는 정씨.
철수는 정씨를 알아채지 못한 듯 집 앞에 서 문을 잡는다.
슬쩍 열어보지만 잠긴 듯, 문을 확 잡아 뜯는다.
거침없이 안으로 들어서는 철수.
방안을 두리번거린다. 물건들을 이리저리 치우고 장을 열어보고
물건들이 쓰러지고 점점 어지럽혀진다.
다른 방으로 향하는 철수.
문이 잠긴 방.
문을 뜯어내든 열어버리는 철수.
안에는 자고 있던 경숙, 철수를 보고 비명을 지른다.

- 정씨의 집으로 다가가던 강박사와 대령 일행, 비명 소리를 듣고 흥칫.
접근을 멈추라는 대령의 제스처.
하지만 순이는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

엄마 순이야!

- 경숙에게 기타 그림을 보여주는 철수.
하지만 경숙은 계속 비명만 지르며 철수에게 물건을 집어 던진다.
경숙의 방을 뒤지는 철수, 그를 붙잡고 늘어지는 경숙.
철수가 경숙의 방을 나간다.
엎겨 있는 경숙을 철수가 떼어 밀어내자
경숙은 창호문을 부수고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다.
당황하는 철수의 얼굴로 랜턴 빛이 맺힌다.

대령 김철수!!! 김철수!!! 머리 위로 손 올리고 앞으로 나와!

겁탈이라도 당한 듯 앞드려 울부짖는 경숙.

철수가 그들을 향해 나아간다.

검은 양복 1,2,(자동소총) 대령(권총)이 철수를 겨눈다.

맨 앞에 보이는 순이.

잠시 순이를 보던 철수, 순이에게 종이를 보여준다. 기타그림.

순이 (대령 일행을 돌아보며) 제가 얘기할게요! !

엄마 순이도 있잖아요!! 총 치워요!!

지태 뭐해요?!! 얼른 안 쓰고!!!

감박사 당신은 입 좀 다물고 있어!

대령이 눈짓하자 모두 총구를 내린다.

철수에게 다가가는 순이.

순이 철수야...

철수

순이 그거 여기 없어. 이리와.

철수 (부드럽게 풀어지는 눈빛)

지태 싸! 총을 소라니까!! 이 병신돌아!!

약오르고 불안한 지태, 옆에 있던 양복1의 자동소총을 빼앗는다.

순이가 철수의 손을 잡으려 하는 순간,

귀를 찢을 듯한 총소리. 드르르릉--

철수의 주변 바닥에 박히는 총알들. 미동도 하지 않는 철수.

대령 뭐야!!! 당신 미쳤어?!!!

순이에게 달려가는 지태.

지태가 철수를 겨누며 순이 허리를 부여잡는다.

철수의 입에서 낮고 굵은 숨소리가 흘러나온다.

순이 놔! 이거 놔!!!

순이를 붙잡고 점점 뒤로 물러서는 지태.

지태 가만있어! 내가 지금 구해주잖아!!!

순이 총 치워!!

철수, 그 앞에 지태와 순이, 그 뒤로 대령일행과 가족, 세 그룹으로 나뉜 상황.

순이가 지태의 총구를 잡고 늘어진다.

엄마와 명수가 다가가려 하지만 강박사와 박조교가 붙들어 말린다.
 그 때 저쪽에서 어리둥절 나타나는 동석이네 할머니.
 순이를 밀어내고 철수에게 총구를 겨누는 지태.
 철수의 숨소리가 더 크고 거칠어진다.
 총이 발사되는 순간 순이가 지태를 민다. 드르르륵---
 엉뚱한 곳에 박히는 총알들.
 지태가 순이의 뺨을 후려친다.

강박사 그만해!
 엄마 순이야!
 할머니 아구 저노무 자식!!!

할머니가 갑자기 지태에게 달려가 붙들고 늘어진다.
 지태가 할머니를 밀어 넘어뜨린다.
 쓰러진 순이의 배를 차는 지태.
 철수의 눈동자가 회색으로 변하며 동공이 작아진다.

지태 (발길질하며)야... 내가 우스워? 내가 우습냐!!! 너 같은 기집애 때문에 내 꼴이 이게...

그 순간 대령과 강박사 박조교, 검은 양복들 뭔가를 보며 넋이 나간다.
 철수의 몸이 검게 변하고 있다. 얼굴을 제외한 은몸에 검은 털이 돋아나고
 한껏 드러낸 이빨이 날카롭게 변하며 자세가 낮아진다.

대령 (얼이 빠져)저게... 뭐야...

돌아보는 지태와 순이. 역시 돌처럼 굳은 얼굴들.
 큰 숨을 들이쉬는 철수, 목을 펴 울부짖는다.
 곧바로 지태에게 달려드는 철수.
 지태가 철수를 향해 총을 쏜다. 철수의 다리에 박히는 총알.
 잠깐 휘청 하지만 계속 달려 지태의 목을 무는 철수.
 비명을 지르며 고통스러워 하는 지태.
 지태는 방아쇠를 당기지만 철수는 총을 밟고 한손으로 총신을 휘어 버린다.
 그 상태로 연사로 발사되어 약실이 터진다.
 지태의 목을 뇌주지 않는 철수.
 순이는 공포에 휩싸여 뒤로 기어 물러서고 있다.
 권총을 쥔 대령의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지태의 비명이 잦아들더니 숨이 끊어진 듯, 눈에 힘이 풀린다.
 철수가 입을 떼고 사람들을 바라본다.
 피범벅이 된 철수의 입.

감박사 (다가가며) ...철수야. 진정하고... 이리와.

물러서는 철수, 다시 한번 허공을 향해 포효한다.
그리고 순이를 들어 올리고 언덕을 뛰어 올라 간다.
도망치는 철수를 바라보는 대령과 감박사.

대령 사살해..

- 숲, 뒤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사람들의 목소리.
철수 등에 업힌 순이의 가늘게 뜬 눈.
어디론가 달려가는 듯, 들썩이는 철수의 등.
언덕을 오르고 나무들 사이를 가로지르며 한 없이 달리는 철수.
철수가 왼발을 닿을 때 마다 허벅지에서 피가 한웅큼씩 베어 나온다.
철수의 목을 힘껏 감은 순이, 슬며시 눈을 감자 눈물이 베어 나온다.
등 뒤로 작아지는 사람들의 외침.

- 어둡고 깊은 숲속. 고요하다.
철수의 묵직한 발이 땅을 밟는다.
부드럽게 순이를 바닥에 내린다.
철수의 허벅지에서 피가 솟구친다.
순이 얼굴 상처에 손을 가져가는 철수.
두렵고 슬픈 눈빛으로 철수를 바라보는 순이.
배시시 웃는 철수.

순이 나 다 알아.
철수
순이 내가 알아. 다 알아.
철수
순이 철수야 너무 무서워...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

순이가 철수의 얼굴을 어루만지는 순간.
그 때 저 멀리서 희미하게 들리는 엄마의 목소리.

엄마 순이야!...

저 멀리 점 같은 렌턴 불빛들이 점멸하며 다가오고 있다.

순이 (일어서며)숨어.
철수

순이 숨어 빨리! 사람들 오잖아!

순이가 떠나려 하자 다가오는 철수.

순이 내가 가서 너 도망갔다고 할 테니까 따라오지 마.

다시 떠나려는데 철수가 따라온다.

공놀이 할때, 글자를 가르쳐 줄때, 노래를 들려줬을 때

순이를 바라보던 그 눈빛 그대로 순이에게 다가온다.

떨리는 순이의 호흡.

순이 가... 가라고 이 바보야... 너 잡히면 죽어... 가 (울먹인다) 제발 가... 지금은 같이 못 있어.

순이가 물러나면 여전히 따라오는 철수.

잠시 철수를 바라보던 순이, 눈물이 흐른다.

순이 가!!! 너 싫어!!! 꺼져!!!!

어안이 빙빙한 철수의 표정.

순이 (발로 걷어차며) 가!!! 저리가!!! 더러워!!! 가라고 이 멍청아!!!!

철수 다가가 순이의 손을 잡으려 하지만 뿌리치는 순이.

철수가 그래도 다가오자 순이가 밀어내고 뺨을 때린다.

순이 (거센 울음) 미안해... 미안해... 철수야 미안해....

오열하며 철수를 어루만지려다 다시 물러나서

순이 가!!! 너 싫어!!!! 나 갈거야.... 오지마... 나 갈거야...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철수의 표정.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연다.

철수 가디마...

순이

철수 가지마...

철수의 말에 잠시 놀란 듯, 억장이 무너지는 듯, 더 거친 울음이 터지는 순이.

다가가려다 물러서고 다가가려다 물러서고

순이 가!!! 꺼져!!! 저리 가!!!!

순이 뒷 걸음질치며 돌멩이를 주워든다.
따라오려는 철수에게 던진다.
철수가 물러서지 않자 계속 돌을 주워 던지는 순이.

순이 가!!!!

철수의 얼굴에 돌이 맞는다.

순이 미안해... 가!!!!

또 돌멩이를 주워 던지고 철수의 어깨에 맞는다.
뒷 걸음 치며 순이가 멀어지지만 이번에 철수는 따라가지 않는다.
순이의 시야에서 멀어지는 철수의 모습.
멀어지는 순이.
순이는 돌아서 뛰어 사라진다.
어둠에 묻히는 철수의 실루엣.
한참동안 그 자세 그대로 웅크려 앉아 있는 철수.
가늘고 애처로운 신음이 새어 나온다.
철수가 눈물을 흘린다.
잠시 후... 뒤돌아 사라지는 철수.

65. 숲속 _ 밤

순이를 외치며 숲속을 헤매는 사람들.
순이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와 선다.

순이 나 여겼어.

순이에게 혈레벌떡 다가가는 사람들.

엄마 (순이를 감싸며)괜찮아? 괜찮니?
순이 도망갔어.

순이를 바라보는 강박사, 대령.

순이 도망갔어. 나 내려놓고 갔어. 멀리.

서로 눈을 맞추는 대령과 강박사.

강박사 어쩔 거요?

대령 ... 이 병력으론 오늘 못 찾겠는데.

순이 오늘이 아니라 계속 못 찾을 거예요.

강박사 수색 작업이 커지면 일도 커질 거요. 애초에 목적이 덮으려는 거 아뇨?

대령

강박사 우리만 입 맞춰놓면 당신들 원하는대로 해결 될 거요. 아님 제대로 다시 한번 해보던가.

대령 (잠시)... (양복1,2에게)일단 가자.

슬금슬금 떠나는 사람들.

엄마와 함께 순이도 발걸음을 옮긴다.

어두운 숲을 돌아보는 순이.

66. 별장[마당] _ 낮

햇살이 별장으로 쏟아진다.

별장을 잠시 바라보던 강박사, 승용차에 오른다.

출발하는 승용차를 바라보던 순이에게 대령이 다가온다.

대령 우리 아주 가는 거 아니다. 그 놈 다시 나타나면 먼저 나한테 알려. 응? 번호 받았지?

순이

엄마 우리도 이사 가요. 다음 주에...

순이 가족을 잠시 보고 군용 지프로 향하는 대령.

차문이 닫히고 지프도 출발한다.

67. 별장[거실] _ 밤

거실, 짐을 꾸리는 순이, 엄마, 명수. 슬픈 눈빛들.

명수 (철수가 입던 옷을 개며)엄마 이거는 어떻게 해.

엄마철수 새 옷 하나 사준다는 거를... 끝까지 못 사줬네.

철수의 단벌 옷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순이.

- 마당, 창밖에서 숨어 가족들을 바라보는 철수.
엄마, 명수, 그리고 순이의 뒤 모습.
젖은 눈으로 그들을 보던 철수. 가늘고 슬픈 신음.
돌아서 사라진다.

68. 별장[철문 방/마당] _ 낮

철문 방, 철수의 책상에 앉아 있는 순이.
종이에 뭔가를 쓰려한다. 그러다 연필을 거두고 다시 뭔가 쓰려다 말고 종이를 접었다가 다시 펴고
밖에서 들리는 명수의 목소리.

명수 누나! 빨리 와!

순이, 복잡한 눈빛으로 잠시 종이를 바라본다.
종이에 뭔가를 쓰는 순이.
리본 모양으로 종이를 접어 책상 위에 올려놓는다.

- 순이가 헛간을 나와 용달차로 향한다.
정씨, 할머니, 동석, 동미에게 인사하고 차에 오른다.
짐을 가득 실은 용달차가 출발하고 이웃들이 손을 흔든다.
멀어지는 별장.

69. 별장[마당] _ 낮

공무원 그래서... 그때 동화물산이 파산하면서 이 집이 김순이씨 어머니 유옥희님 소유로 넘어갔
구요. 유옥희님이 돌아가시면서 김순이씨에게 이 별장을 남기셨어요. 모르셨던 거죠?

자물쇠로 잠긴 헛간 문을 응시하던 순이.

순이 나한테 한 얘기에요?
공무원 아무튼 저... 파셔야죠? 여기가 경치가 괜찮아서 펜션 단지가 들어선다니까...

순이가 헛간 벽으로 다가간다. (은주와 공무원의 잡담)
낮은 합판들이 쇠창살 창을 막고 있다. (안이 보이지 않는다)

순이 하룻밤 자고 가도 되죠?

익아한 공무원과 은주.

70. 별장[거실] _ 저녁/밤

늦은 저녁, 어두워지고 있는 숲속.
나무의 실루엣들이 하늘로 뻗은 가운데, 검은 무언가 시선 앞을 지나간다.

- 거실, 여기 저기 낡고 더러워졌다.
침낭과 생수 등을 내려놓는 공무원.

공무원 이거 구하느라 뭘 정리까지 갔다 왔네 그냥.

순이 (지갑에서 만원 지폐를 몇 장 꺼내주며) 근처에는 사람들이 없나?

공무원 (돈을 받아 놓으며) 몇 년 전까지 두어 채 있었는데 다 허물고 이거 하나 남았어요. 웬만 하면 다른 데 가시죠. 연세도 있으신데 먼지도 많고... 여기 산짐승도 돌아다닌다는데...

순이 산짐승?

공무원 ... 가끔 밤에 이리 울음소리가 들린대요. 근데 내가 볼 땐 멧돼지야 멧돼지...

잠시 공무원을 바라보는 순이.

순이 봤어요?

공무원 (자리풀 뜨며) 못 봤지. 봤으면 큰 일 나게... 저... 저는 갑니다. 내일 부동산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한번 봐셔야죠?

공무원이 현관을 나간다.

은주 쥐 나오는 거 아니야?

순이 은주도 어여가. (돈을 꺼내며) 깨끗한 데 끌라서 자고 내일 천천히 데리러 와.

은주 괜찮아요. 나도 여기서 같이 자.

순이 니가 여길 어디! 먼지도 많고 얼른 가.

은주 괜찮아. 재밌을 거 같은데.

- 침낭 속에 누운 은주와 순이.

은주 할머니,
 순이 응?
 은주 왜 여기서 자고 싶었어?
 순이 ... 몰라.
 은주 할머니 이거 블래?

은주가 핸드폰을 열어 사진을 보여준다. 은주 또래의 잘생긴 남자 아이.

순이 뉘 집 자식이 이렇게 잘생겼냐?
 은주 (과시하듯)잘 생겼지??
 순이 집에 돈 좀 있는 애냐?
 은주 가난해.
 순이 ... (한숨)그럼 대충 데리고 놀다가 차버려.
 은주 ㅋㅋㅋㅋ~
 순이 흐흐... 니들이 뭘 알겠냐. 뭘 알아. 놀 수 있을 때 실컷 놀아야지.
 은주 근데 애 되게 착해.
 순이 잘해줘. 남자는 칭찬해주면 좋아한다. ... (잠시 보더니) 어른 되면 안 보이던 게 보여.
 그런데 마음은 많이 둔해져. ...많이 알면 좋은 거 같지만... 그럼 겁쟁이가 되서 못 하는
 게 많아.

그 때 은주 손에 쥔 핸드폰 벨이 울린다.

은주 여보세요? 응... 나 할머니랑... 잠깐만...

은주는 순이에게 눈짓하고 자리에서 일어선다.

- 별장 주변에 세워둔 승용차, 전화하며 다가오는 은주.

은주 ... 이제 자려구. 응.... 아이구 그랬구나~ 내 목소리 듣고 싶었구나~ 저번 주에...

그 순간 은주 뭔가를 보고 말을 흐린다.

차 옆 둔덕 나무 옆에서 누군가 은주를 바라보고 있다.

평범한 셔츠, 청바지, 운동화 차림의 18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 손에는 종이 몇 장.

구부정한 자세, 커다란 덩치에 어울리지 않을 만큼 예쁜장한 얼굴,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이상해 보인다.

밖에서 생활하는 듯 약간 더러운 느낌이지만 노숙자와는 달리 눈에 충기가 흐른다.

은주를 바라보는 철수.

시선이 부담스러운 은주.

은주 (전화)아니야. ... 응... 나 들어가야 되겠다. ... 응 그래... 잘자.

철수가 은주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는다.

은주 (철수에게)누구세요?

철수

자리를 뜨는 철수. 절뚝이는 걸음으로 노래를 흥얼거리며

예전 순이가 불렀던 그 멜로디.

언덕 너머 사라지는 철수.

은주는 철수 쪽을 보다가 차문을 열고 가방을 꺼낸다.

- 은주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꼼꼼히 문을 잠근다.

손에 묵직한 뭔가를 쥐고 있다.(전기 충격기)

순이 뭐니?

은주 Stun gun. 아빠가 사줬던 거. 누가 들어올지도 모르잖아.

순이

- 밤. 잠들어 있는 은주.

순이는 눈 뜨고 있다.

뒤척이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이. 핸드폰을 열어 본다 1시 23분.

- 거실, 창밖을 내다보는 순이.

달빛에 내리는 황량한 마당.

소파에 앉는다. 순간 미세한 비닐 소리에 소파를 내려다본다.

유심히 바라보니 소파 쿠션들 사이에 뭔가 끼어 있는 것이 보인다.

천천히 꺼낸다. 그것은 '해태 카라멜'

조용히 카라멜을 응시하는 순이.

그 순간 수풀을 지나가는 부스럭 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고개를 드는 순이.

또 한 번 소리가 들린다.

순이가 벌떡 일어서 주위를 둘러본다.

심상치 않은 순이의 표정.

잠시 그대로 있다가 현관으로 다가가 문을 연다.

마당으로 향하는 계단을 내려간다.

마당을 지나 조심스레 사방을 살핀다.

헛간을 바라본다.

역시나 쇠창살은 나무판들로 막혀 있다.

헛간으로 향해 걸어간다.

헛간 문, 자물쇠가 풀려 걸려 있다.(낮에는 잠겨 있던 자물쇠)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간다.
 어둡지만 새어 들어오는 달빛으로 어렴풋이 보이는 헛간 안.
 양쪽을 막아섰던 철망을 사라지고 온갖 종류의 화분들이 안에 들어차 있다.
 낡고 기괴한 걸과는 다르게 더러움 없이 정돈 된 헛간의 내부.
 양동이, 고무 다라이, 쓰레기통 등에 채운 흙으로 만든 화분들.
 그 안에 자라는 갖가지 식물들.
 맨 안쪽 철문이 보인다.
 철문 아래로 희미한 빛이 새어 나온다.
 순이의 호흡이 떨리기 시작한다.
 철문으로 다가가는 걸음도 떨린다.
 마침내 철문 바로 앞에 선 순이, 철문 아래 가는 빛줄기가 순이의 신발에 닿는다.
 순이의 떨리는 손이 천천히 손잡이를 잡는다.
 손잡이를 세게 움켜쥐는다.
 손잡이에서 손을 떼다.
 힘없이 손을 떨어뜨리고 잠시 멈추어 선 순이.
 돌아선다.
 한걸음 두걸음 헛간 밖으로 다시 나아간다.
 다시 멈춘다.
 돌아보는 순이.
 갑자기 성큼성큼 다가가 철문을 확 열어젖힌다.
 철문 방 안.
 순이를 뺨히 바라보고 있는 철수.
 믿을 수 없다는 듯 철수를 바라보는 순이.
 떨리는 순이의 눈빛과는 다르게 차분한 철수.
 철수가 셔츠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낸다.
 리본 모양으로 접힌 낡은 종이, 순이에게 건넨다.
 조심스레 받아 펼쳐보는 순이.
 수 십 년 전 썼던 자신의 글씨,

<기다려. 나 다시 올게>

순이, 가만히 종이를 응시한다.
 철수는 뭔가를 기다리듯 순이를 바라본다.
 순이의 호흡이 고르지 못하다.
 그렇그렇한 철수의 눈.
 순이 갑자기 뭔가 깨달은 듯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돌린다.
 뚫어져라 순이를 응시하는 철수.

철수 순이...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슬며시 돌아보는 순이.

철수 ...(투박하고 서툰 말투)미안...애요...

순이가 슬며시 손을 내린다.

순이 ...나 기다렸어?

고개 끄덕이는 철수.

순이 철수야... 나... 기다렸어?... 여기서?....

철수 미안해요... 잘 못... 했습니다...

이해를 못해 한참 동안 철수를 쳐다보던 순이

잠시 후 기가 막힌 듯, 눈물이 차오른다.

순이 아니야. 아니야... 그거 거짓말이었어. 미안해. 철수야... 미안해... 거짓말이었어. 내가 그때 거짓말 했어.(울음에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때 철수 때리고... 발로 차고... 돌 던지고... 다 거짓말이야... 안 미워... 하나도 안 더럽고... 하나도 안 멍청해...

철수의 얼굴에 흐린 미소가 번진다.

순이 나는 이제 할머니야... 머리도 하얗게 새고... 완전히 쭈그렁 방탕이야...

철수 아니야... 똑같애... 손도...똑같고. 입도 똑같고... 눈도 똑같애요.

순이

철수 순이 지금도... 이뻐.

순이 눈을 질끈 감아 참아보지만 더 거센 울음이 터진다.

순이 (오열)...고마워...

철수가 고개를 숙여 앞으로 내민다.

뭘 해야 할지 모르는(잊어버린) 순이.

철수는 순이가 반응이 없자 다시 원래 자세로 하고는

철수 말해줘...

순이

철수 이제 말해... 줘야지.

순이는 철수의 눈빛에서 뭔가를 읽은 듯, 천천히 입을 떼다.

순이 ... 이제 그만 기다려 ... 이리와.

철수가 단숨에 다가가 순이를 안아준다.

철수의 머리를 연신 쓰다듬는 순이.

순이 내가 미안해. ... 나는 다 했어. 나는... 나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다른 남자랑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살았어. 나 혼자 다 했어...

철수 괜찮아... 다시 왔으니까.

순이 미안해... 미안해...

철수 만이... 보고 싶었습니다...

순이 나도...

눈물범벅 순이의 얼굴에도 희미한 미소.

한참 동안 말없이 부둥켜안고 있는 순이와 철수.

- 간이침대에 웅크려 누운 순이, 그 뒤에서 감싸고 누운 철수.

잠들어 있는 듯 눈을 감고 있다.

순이 손을 진 철수의 손.

71. 별장[거실] _ 새벽

- 들판에 새벽이 밝아 온다. 살랑이는 바람이 풀잎이 흔들린다.

- 언덕에도 새벽이 밝아 온다.

- 숲에도 새벽이 밝아 온다.

- 순이 얼굴에 푸른 새벽빛이 내린다.

슬며시 눈뜨는 순이.

벌떡 몸을 일으킨다.

철수는 보이지 않는다.

침대에 걸터앉아 방안을 둘러본다.

아담하게 꾸며져 있는 철문 방.

벽에 붙은 순이를 그린 그림(전에 그렸던). 부서질 듯 낡고, 젖었던 것을 말린 듯 번져있다.

조각들을 세밀하게 맞춰 놓은 순이의 기타가 한쪽에 기대어져 있다.

책상위에 가지런히 쌓인 종이들.

순이가 종이들을 살펴본다.
 이런 저런 풍경들, 꽃들을 그린 그림들.
 침대 밑에 작은 화분들.
 순이의 복잡한 눈빛.

72. 별장[마당] _ 아침

차 조수석에 앉은 순이.
 은주가 하품하며 운전석에 올라탄다.
 벨트를 메고 브레이크 풀고 시동 걸고.

은주 갈까?
 순이
 은주 왜? 뭐 놓고 온 거 있어요?
 순이 놓고 가는 거... 없어. 가자.

73. 승용차 _ 아침

달리는 차안.

은주 배고파.
 순이 배고프지? 어디로 가야 맛있는 걸 먹나?
 은주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먹어야 돼.
 순이 너는 그렇게 잘 먹는데 살도 안찌니?
 은주 ... 할머니.
 순이 응.
 은주 나 어제 밤에 이상한 사람 봤어.
 순이
 은주 응 어제 전화하는데 나를 한참 보더라고... 그런데 원래 무서워야 되는데 안 무서웠어.
 순이
 은주 왜 안 무서웠지? 그리고 좀 잘생긴 거 같던데.
 순이 ... (과시하듯)잘 생겼지?
 은주 응. ...응? 어떻게 알아?

그 때 은주의 전화벨이 울린다.

은주 (핸즈프리 응답) 네, ...네... 잠깐만요. (순이에게) 할머니 어제 공무원 아저씨.
순이 (전화를 받아 들고) 안 팔아요.(전화 끊는다)

은주는 슬쩍 놀라 순이를 바라본다.

말없이 전화를 건네는 순이.

순이가 무심히 창밖을 내다본다.

스쳐 지나가는 나무들, 들판, 언덕.

순이가 부르던 그 노래가 음악처럼 흐르는 가운데.

- 19살의 순이, 철수에게 감자를 먹이는 모습.

- 웅기종기 모여 철수와 아이들과 염소에게 공책을 먹이던 순이.

- 철수 앞에서 노래를 부르던 순이.

- 서로 힐끗거리며 공부하는 척을 하던 순이와 철수.

- 철수와 함께 들판을 뛰던 순이.

그 시절의 추억들.

74. 들 판

저 멀리 순이의 승용차가 멀어지고 있다.

언덕에 올라 승용차를 바라보는 철수.

읽을 수 없는 철수의 눈빛.

계속해서 멀어져 작아지는 순이의 승용차.

끝